

성도의 날 11 1996

특별 부록 : 어린이란

마침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표지 설명

많은 예술가들이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나팔이인들을 방문하신 기사를 묘사해 왔다. 앞 표지에 실린 엘 파손의 그리스도와 물론경의 어린이들과 뒤 표지에 실린 론 크로스비의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묘사한 다른 작품들을 보려면 10쪽부터 시작되는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를 참조한다.

어린이란 표지 설명

열한 살인 헨릭은 네 명의 남동생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긴다. 14쪽의 "노르웨이 릴레스트롬의 헨릭 아문센"을 참조한다.
(표지 사진 촬영: 디앤 워커)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순종을 통해 오는 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2
"그 책은 버리지 마세요!"	
이파레치다 제미니스 데 올리베이라 파소스	8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10
엘리아의 영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	18
기이한 일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블로스 수아레스	22
코바늘 뜨개 담요 밑에서 찬 머레이 스미스	32
푸에르토리코의 기쁨에 찬 성도들 래린 포터 곤트	34

청소년란

단지 한 학생만이 비트리즈 이스터 페레스 꼬르테스	17
회개의 시간 크리스토퍼 챗윈드	24
평안을 지님 테머러 리팅 베일리	26
꼭 불드십시오 제임스 엠 패러모어 장로	28
제니의 기적 빅터 더블류 해리스	46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5

어린이란 (별책 부록)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 엘 톰 페리 장로	2
함께 나누는 시간: 십일조와 헌금 캐런 애쉬튼	4
어린 친구를 위하여: 리지가 예수님을 기억함	
로잔 더블류 토엘크	6
약속의 땅을 향한 리하이의 여행 다이안 테커	8, 12
이야기: 사랑이 가득 찬 여행 가방 레이철 페이스 캐스터	10
친구 사귀기: 노르웨이 릴레스트롬의 헨릭 아문센	
디앤 워커	14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고든 비 헝클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자도: 정원화:보이드 케이 패커, 윌 톰 페라,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넉슨, 말린 에이치 옥스, 웬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틴,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랜드

고문: 스펜서 제이 콘다, 윌 라이오널 캔들라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날드 윌 니어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캘리

그래픽 책임자: 윌리엄 로이보그

편집소팀:

관리 편집인: 카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즈 올 빌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디앤 워커

편집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부장: 메리앤 마틴데일

제작보조: 배스 데일리

디자인소팀:

잡지 그래픽 부장: 윌 엠 가와시카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랜겐

디자인: 캐리 쿡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테니스 커비

매뉴얼 에이치 맥스웰

구독 담당 소팀: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스

통 권: 제 368호, 제 33권, 제 11호

동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6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원

편집인: 한상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6년 재단 법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8/94 번역 승인-8/94

November, 1996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6991 320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월간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빛 해외 구독

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말린

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

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

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

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9.00 per year.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DDRESS AND NEW ONE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016-0368, USA. SUBSCRIPTION HELP LINE: 1-800-453-3860, U.S. EXT. 2947; CANADA EXT. 203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The SOU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러시아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이끌어 줘

저는 아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의 애독자가 된 사실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들은 여러 차례 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해답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아 리아호나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잡지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이끌어 주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누비아 두아르테

모기 샌트로 와드

브라질 상파울루 모기 다스 크루세스 스테이크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함

리아호나(영어 판)를 읽을 때마다 저는 고대의 모로나에 장군을 회상합니다. 그는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그의 군대를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시켰습니다.(엘마서 43:19 참조) 우리도 역시 교회 잡지나 서적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매월 리아호나를 읽을 때마다 저는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인생에서 부닥치는 어떠한 상황도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잘 준비되어 집니다.

제임즈 말레 알로 장로

필리핀 다바오 선교부

대관장단께 경의를 표함

1995년 11월호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실린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의 대관장단 메시지를 읽고 저는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제 "주님을 섬기고 사탄을 물리침"은 우리에게 언제나 흥미를 자아내

줍니다. 이 글 속에는 정신적인 면에서 심오하고 진실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대관장단께 경의를 표합니다.

빅토르 플라센시아 파로우

미라플로레스 와드

페루 피우라 카스틸라 스테이크

사랑하는 친구

매월 저는 사랑하는 친구 리아호나(스페인어 판)가 우리 집에 도착하는 때를 가장 많이 기다립니다. 리아호나에는 평화와 진실, 그리고 큰 애정이 담겨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책장을 펴봅니다. 저는 이 잡지를 읽을 때마다 제가 구세주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며 구세주 역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이 잡지에서 풍겨지는 따스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행운을 갖기를 바랍니다. 리아호나에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렐라 루이스 디 아스 데 감베타

살리나스 지부

우르과이 몬테비데오 동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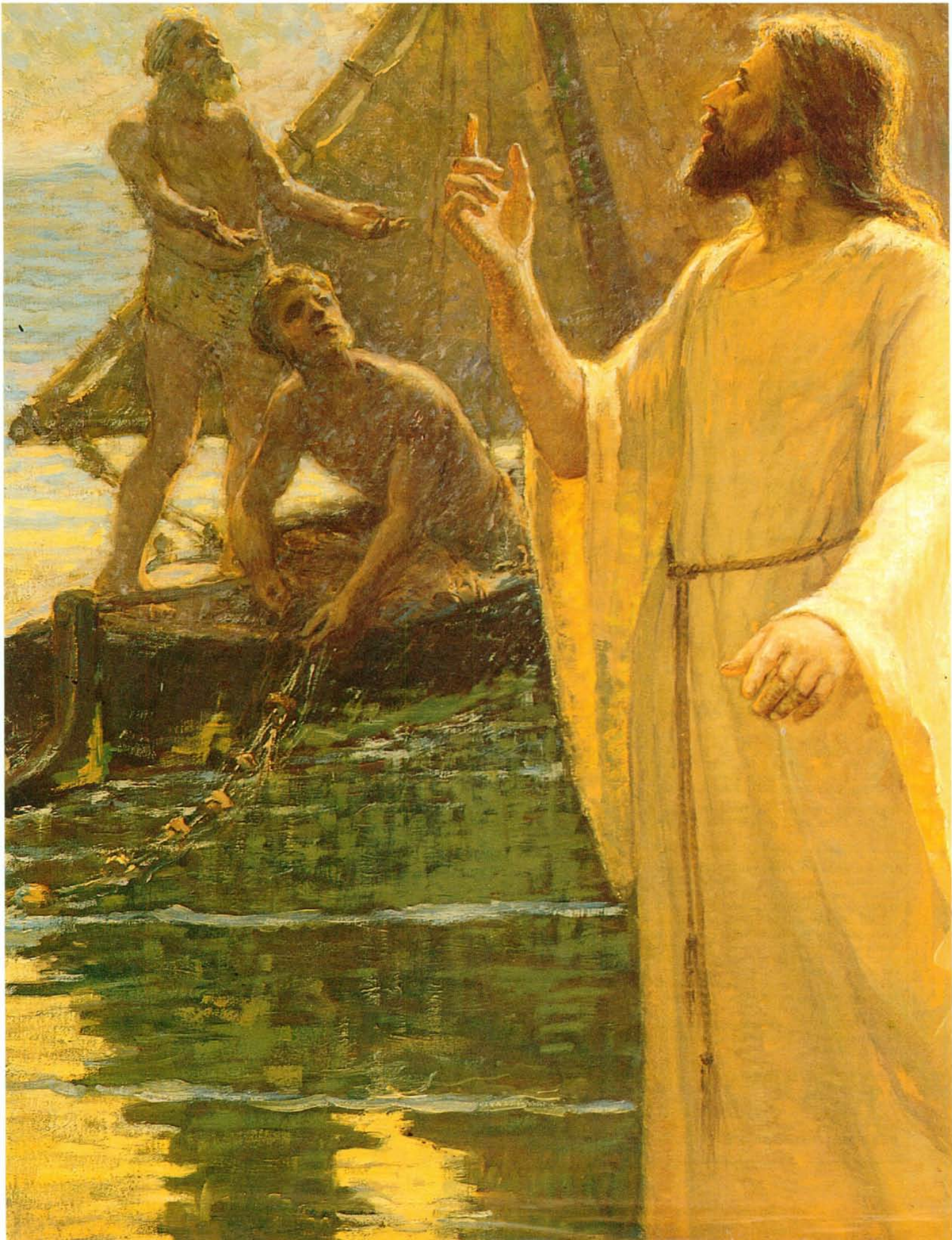
모든 면에서 우수한 잡지

아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는 그 안에 실린 내용 뿐만 아니라 사진과 삽화도 뛰어나 모든 면에서 우수한 잡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 각지의 교회 회원들이 아름다운 경험담을 나누는 것에 대해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고 영적으로 여러 번 강화된 적이 있습니다.

엘슨 칼로스 페레이라

쿠리티바 제4와드

브라질 쿠리티바 이구아쿠 스테이크



순종을 통해 오는 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께서 똑같은 음성으로 여러분과 제게 "나를 좇으라" 라고 하십니다.

다 음과 같은 불멸의 가사를 쓴 시인은 그 시를 통해 진리를 찾는 것의 진정한 중요성을 포착하였습니다.

말해 보아라 무엇이 진리냐?
신이나 사람 원하는 상
반짝이는 진리 우리 찾으리니
깊은 데나 높은 데나 나가리라
귀하고 귀한 소망일세

때를 초월한 진리는 무어냐?
만물의 시종되는 진리
천지 다 무너지고 또한 멀해도
진리만이 모든 것 이기고
영원히 영원히 빛나리
(찬송가, 155장)

주님은 1833년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한 계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진리는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고 미래에 존재할 사물에 대한 지식 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악마가 그분에게 가장 유혹적인 제안을 하였을 때 그분이 옳다고 아시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거절하심으로써 순종에 대한 거룩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 나니... 그[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한 진 리 곧 모든 진리를 받았... 느니라.

“무릇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 충만함을 받을 자는 없나니.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아 드디어 진리로 영광을 얻으 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93:24, 26-28)

충만한 복음이 회복된 이 개화기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근원”에 이르기 위해 미지의 향로나 표시되지 않은 길을 여행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 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로를 준비하시고 결코 실패 하지 않는 지도인 순종을 마련해 주셨 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시해 주신 말씀은 순종이 가져다 주는 축복과, 죄와 잘못의 금지 된 길로 우회해 가는 여행자들이 겪는 필연적인 아픔과 절망을 선명하게 묘 사해 줍니다.

사무엘은 동물을 희생시키는 전통 에 젖어있는 백성들에게 “순종이 제사 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사무엘상 15:22)라고 대답하 게 선언했습니다. 고대와 현대의 예언

그림: 루이 라모, 시편이 울려가자, 맨마크 프라드리스보이, 성의 여행당 소장, 프라드리스보이 박물관의 여기를 받아 게재함.

자들은 순종을 통해 오는 힘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7)라고 말했던 니파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지냈던 그 힘에 대해 엘마가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서술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인 지라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더욱 강하게 뭉쳐졌다.

“그뿐 아니라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느니라.”(엘마서 17:2~3)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195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라고 단 순하지만 아주 힘있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분의 뒤를 이은 예언자들도 그와 같은 순종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구세주께서 “이는 나의 축복을 받을 자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하여 정하여진 율법과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만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32:5)라고 선포하셨을 때도 그 메시지의 핵심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가르침을 비평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분의 행동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삶을 사시고 자신의 거룩한 성역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자만하지 않으셨으며, 교만으로 부풀지도 않으셨습니다. 불성실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며 진실하였습니다.

그분은 영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악마인 거짓의 아버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또 밤낮으로 사십 일간 금식하여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주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가 가장 유혹적인 제안을 하였을 때 그분이 옳다고 아시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거절함으로써 순종에 대한 거룩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고뇌로 인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는 그러한 고통을 견디신 겻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순종하는 아들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에게도 똑같이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던 세리 레위에게도 “나를 좇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추적해 오던 사람과 부유한 사람에게조차도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께서 똑같은 음성으로 여러분과 제게 “나를 좇으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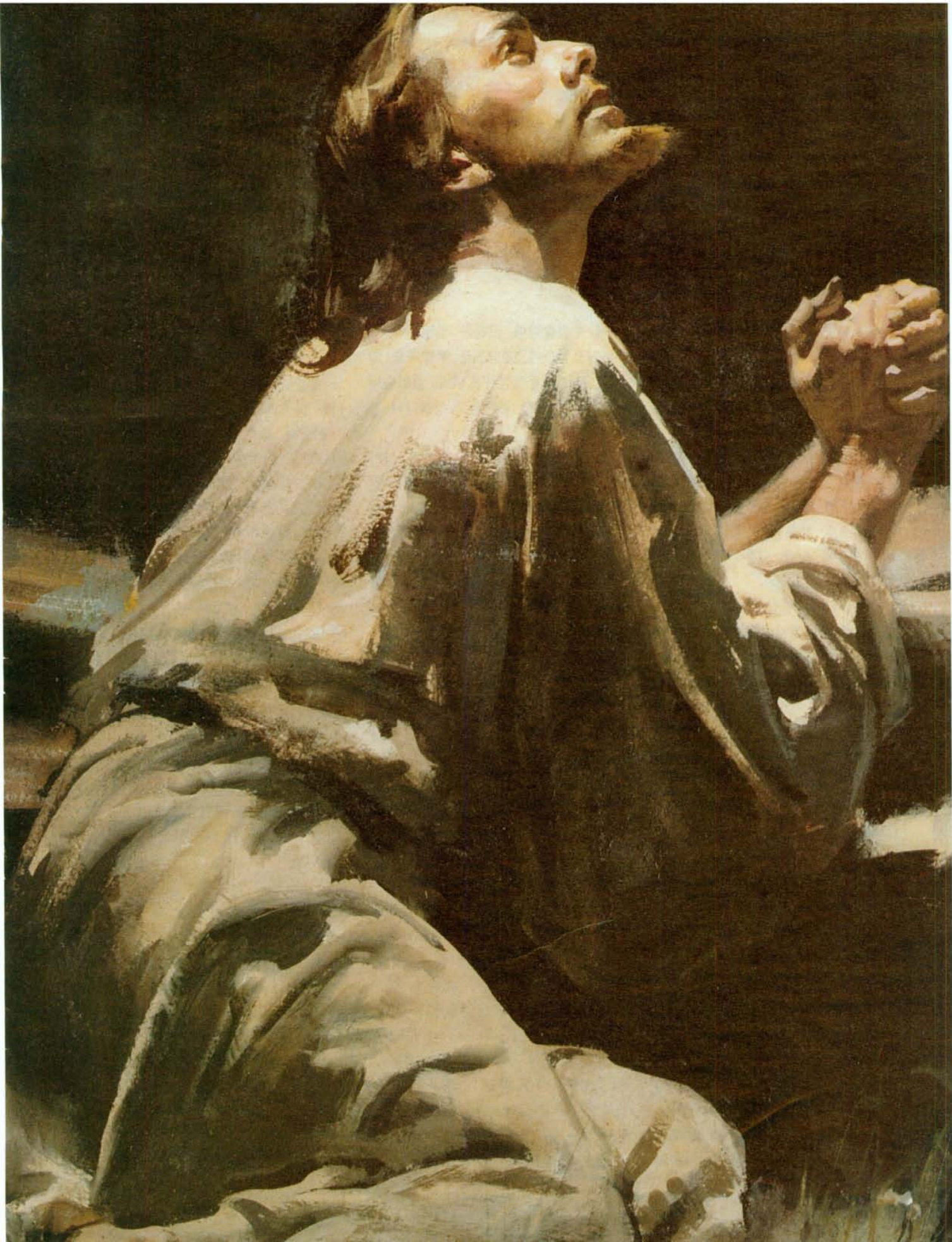
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은 예언자들의 특성이지만, 우리도 오늘날 이 힘의 근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의 교훈을 훌륭하게 터득했던,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의 한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부지런히 저축하고 희생하여 복미로 이주해 왔습니다. 땅과 언어와 문화가 모두 낯설었지만, 그가 믿고 순종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똑같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사는 다소 무정한 도시에서 그는 회원들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그만 지부의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적고 일은 많았지만 그는 교회의 프로그램을 따랐습니다. 그는 지부 회원들에게 참으로 그리스도다운 모범을 보였으며 그들은 아주 보기 드문 사랑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조그만 가게를 꾸리는 상인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전체 수입의 십일조보다 더 많은 돈을 십일조로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지부에서 처음으로 선교사 기금을 냈는데 여러 달 동안 유일한 기부자였습니다. 그 도시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그들을 아버지처럼 돌보고 먹였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그들의 선교 사업과 복지를 위한 도움을 받고는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먼 곳으로부터 와서 그 도시를 지나간 교회 회원들과 그의 지부를 방문한 회원들은



구세주께서는 갯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순종하는 아들의 모범을 보여 주셨다.

그로부터 환대 받고 따뜻한 인정을 느꼈으며, 떠날 때는 자신이 주님의 충실한 종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의 지도자들은 그로부터 깊은 존경과 지극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있어 주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들의 바램은 그에게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도와 주었으며 자주 그들의 복지를 위해 아주 열렬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그의 지부를 방문했던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모임을 갖고 회원들을 방문하면서 그와 함께 12 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마치고 그와 헤어질 때 유쾌한 느낌을 갖고 영적으로 고무되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시간 동안 계속 기쁘게 차를 몰아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때를 돌이켜 보면 그 느낌은 여전히 그들의 영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줍니다.

학식있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하고 교육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며 그들이 한 시간 동안이라

도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행운이라고 여깁니다. 그는 평범한 용모를 지녔고 영어 실력도 완전하지 못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며 집도 수수하였습니다. 그는 자동차나 텔레비전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책을 퍼낸 적도 없었고 유창한 설교를 한 적도 없었으며 세상의 이목을 끌 만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사람들은 줄을 지어 그의 집문을 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의 “진리의 샘”에서 마시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것을 말했다기보다 오히려 어떤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했던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그가 지내온 생활의 힘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주님께 꾸준히 최소한 두 배의 십일조를 기꺼이 바치는 것을 앎으로써 우리는 십일조의 참된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그네를 돌보는 것을 보면 주님께 행하듯이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중재에 대한 그의 확신을 느낌으로써 사람들은 새로운 대화 방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크고 첫째되는 계명을 잘 지켰으며 그와 같이 둘째되는 계명도 잘 지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생각은 끊임없이 덕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의 신임은 두터워졌

습니다.(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이 사람은 선한 빛과 의로움의 광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힘은 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불굴의 커다란 용기를 갖고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15)라고 선언할 때, 우리는 오늘날 큰 고난을 극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구하고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진로를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는 순종의 지도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 진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미지의 바다를 항해할 필요가 없다.

2. 주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은 순종이 가져다 주는 축복과, 죄와 잘못으로 인한 필연적인 아픔과 절망을 선명하게 묘사해 준다.

3. 예수님은 갯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라고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다.

4.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다시 우리에게 “나를 좇으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는가?

“그 책은 버리지 마세요!”

아파레치다 제미네스 데 올리베이라 파소스

우리는 제각기 행복을 찾고자 여러 곳을 기웃대며 여러 모로 모색하지만, 정작 행복은 우리가 미처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종종 발견된다. 내 경우가 그랬다. 그동안 줄곧 행복을 손안에 들고서도 여러해 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다.

1981년, 당시 스물네 살이던 나는 침례를 받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남편도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 무렵 우리에게는 두 살 난 어린 딸 줄리아나가 있었다. 우리는 브라질 투쿠루비에 있던 조그마한 지부에 다녔는데 아베니다 노바 칸타레이아에 있던 한 회원의 집에서 지부 모임을 가졌었다. 우리는 일년 남짓 교회 모임에 참여하다가 어떠한 연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구아루이요스로 이사했던 1983년 무렵에는 교회로 다시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교회 회원들과의 접촉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 이 시기에 우리는 큰 시련을 겪고 있었다. 하루는 집안 청소를 하던 중에, 나와 남편은 오래된 교회 서적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로 결정했다. 그 중에는 물론경 한 권도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경을 지니고 있었으면서 한번도 그 책을 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물론경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책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물론경을 쓰레기통 속에 버리려는 찰나에, 당시 네 살이던 딸아이 줄리아나가 책 표지에 실린 모로나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는, “안돼, 엄마, 그 책은 버리지 마세요!” 하고 소리쳤다. 그냥 버릴려는 생각으로 남편을 바라 보았는데, 남편 또한 나를 바라 보았다. 우리는 딸아이의 간청을 존중해

주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물론경은 그대로 우리 집에 남아 있게 되었다.

1987년에 세째 아이를 출산한 나는 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내 마음에 왜 불행이 가득 차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을 알아내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진리를 갈망하게 되었다. 나는 절망이 깊어, 나를 위한 구원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1989년의 어느 날, 나는 주님께 이끌려 물론경을 집어 들고 읽기 시작했다. 일단 읽기 시작하자 중도에 놓을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읽기를 바라 매일 먼동이 터오는 새벽을 간절하게 기다렸다. 영에 깊은 감동을 받아 울기도 했다. 한때 내가 걸었던 주님의 길을 벗어남으로써 내가 잃은 것이 얼마나 컸던가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교회를 찾기로 결심했다. 전화 번호부를 뒤져 교회 이름을 찾아 내고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다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으며, 그때 이후로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다. 최근에 우리 부부는 성전에 다녀왔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으로서 인봉된 것이다.

나는 물론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며 언제나 우리가 물론경을 연구한다면 어떠한 장애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축복과 시련을 겪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딸 아이를 통해 물론경을 버리지 않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물론경을 버렸더라면 그와 함께 우리의 행복도 날아갔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 대륙에 있는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신 그림 이야기

기원전 559년에서 545년 사이에, 예언자 니파이는 장차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에게 베푸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에 관한 기사를 썼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뒤에 그의 몸을 너희 곧 나의 자녀와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에게 보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행할 율법이 될 것이라...”

“나의 백성들에게 그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표적이 주어질 것이요...”

“의의 아들이 저들에게 나타나 저들의 상한 곳을 아물게 하시고... 저와 더



불어 저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니파이이서 26:1, 3, 9)

거의 600년 동안, 의로웠던 니파이인
들과 레이맨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렸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징하는 예표가 나타난 지 34년 만에
그리스도의 사망을 나타내는 예표가
주어졌다. 큰 폭풍우와 지진과 지각 대
용기 등이 일어났고 칠혹같은 흑암이 3
일 간 무겁게 내리 덮었다. 이러한 일
이 일어난 후 백성들이 바운티폴 땅에
있던 성전으로 모여 "그 죽으심의 표적

이 이미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
여 이야기(할 때)... 보라, 저들이 보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사 무리
가운데 서심에 온 무리의 눈이 저에게
로 향하(더라).

"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
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니파
이삼서 11:2, 8~10)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반구에 있던 백성들에게 베푸신 성역
은 이와 같이 시작되었다. 다음은 니파
이삼서 11~28장에 나오는 사건들의 일
부를 나타낸 그림이다. —케트린 엘 포
울터

그림: 존 스코트,

미대륙을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보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데... 저가 하강하사 무리 가운데
서심에 온 무리의 눈이 저에게로
향하(더라)." (니파이삼서 11:8)







위 쪽(그림): 테드 헤닝거,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과 함께 기도하심

“저들의 증거함이 이라하였더라,...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눈이나 귀로는 보고 들은 일이 없으며,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가 없었고, 우리가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히 크고 놀라웠던지라. 아무도 이를 감당치 못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던 기쁨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

(니파이삼서 17:16-17)

왼쪽(그림): 델 파슨,

그리스도와 물몬경의 어린이들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예수께서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저들이... 보니...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린 아이들을 에워싸매...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

(니파이삼서 17:21, 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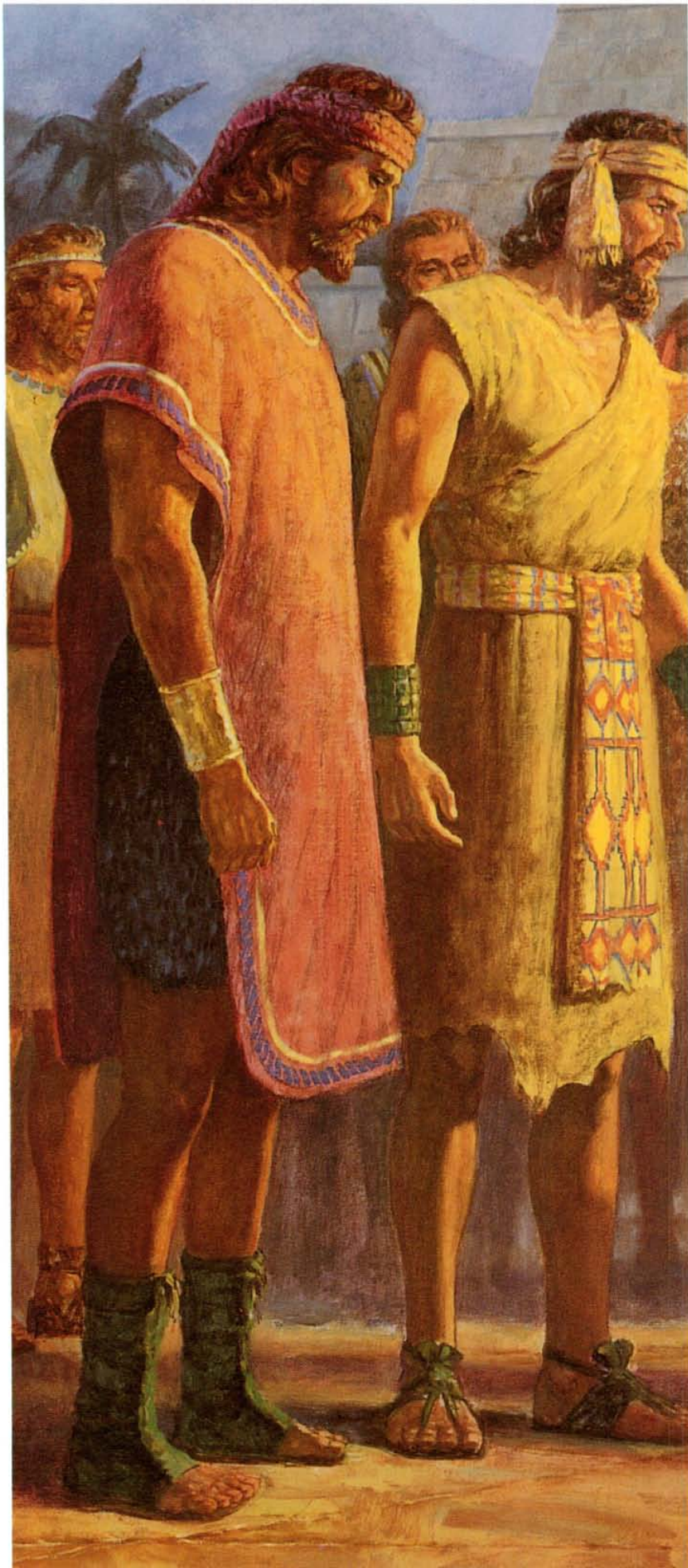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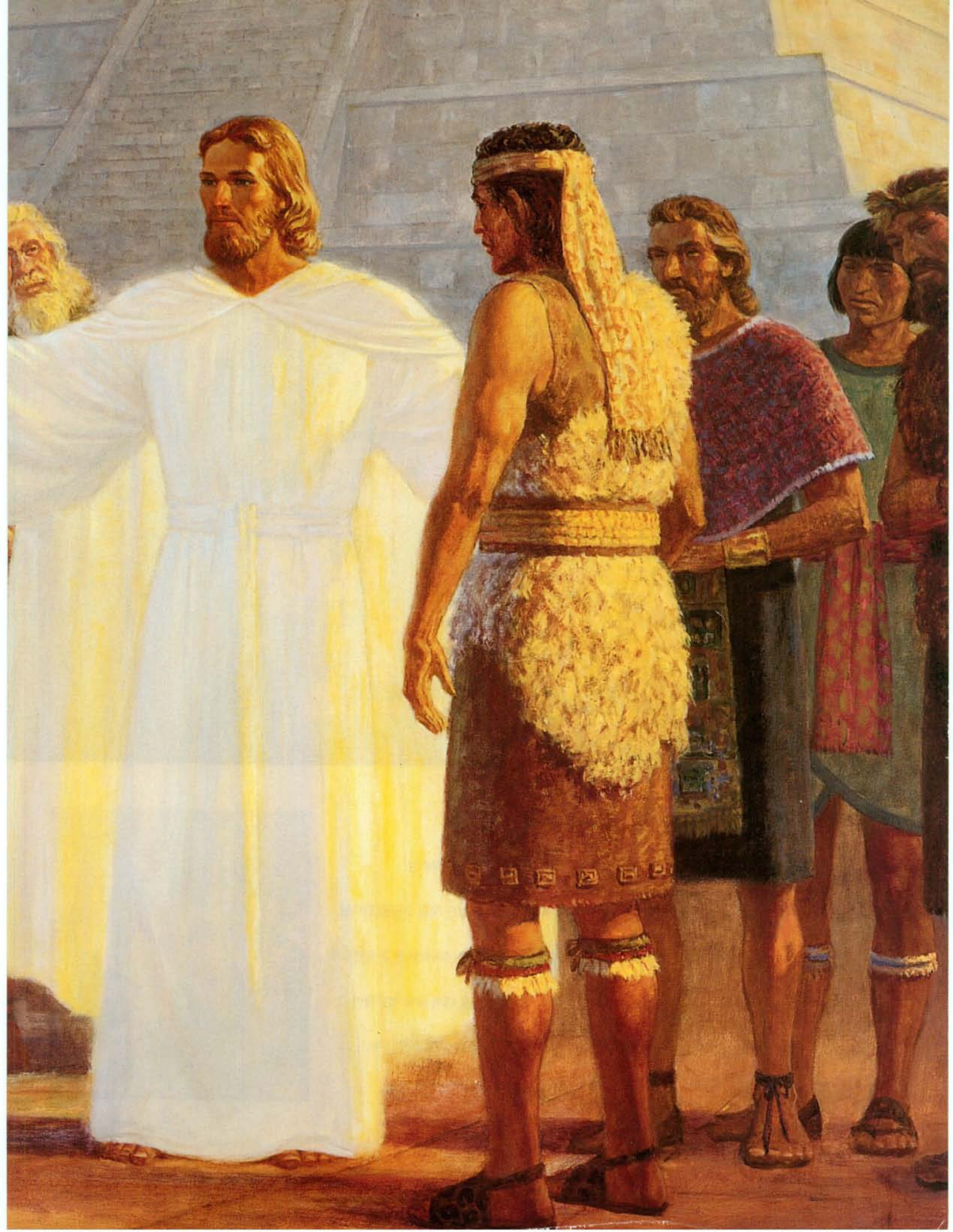
위 쪽(그림): 미너바 타이커트,
 신세계(미대륙)에서 베풀어진 성찬식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옴에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명하시니,
 저들이 이를 먹고 배가 부르게 되니라,
 제자들에게 명하시 무리에게 나눠 주게
 하시니라.”

(니파이삼서 18:3-4)

오른쪽(그림): 게리 캔,
 예수 그리스도와 니파이인 제자들
 “너희가 더욱 복되리니, 너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 만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들에게 행하여지며 내가 하늘의 권세를 입고
 영광 중에 올 때까지 만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성취됨을 보리로다.”

(니파이삼서 28:7)







위 쪽(그림): 로버트 티 배렛,

기록을 가져오라

"니파이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간직하고 있는 기록을 가져 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기록된 모든 경전을 하나로 설명하여 가르치시고 나서, 이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전하라고 명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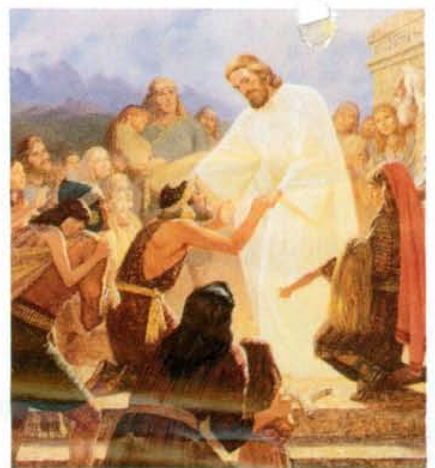
(니파이삼서 23: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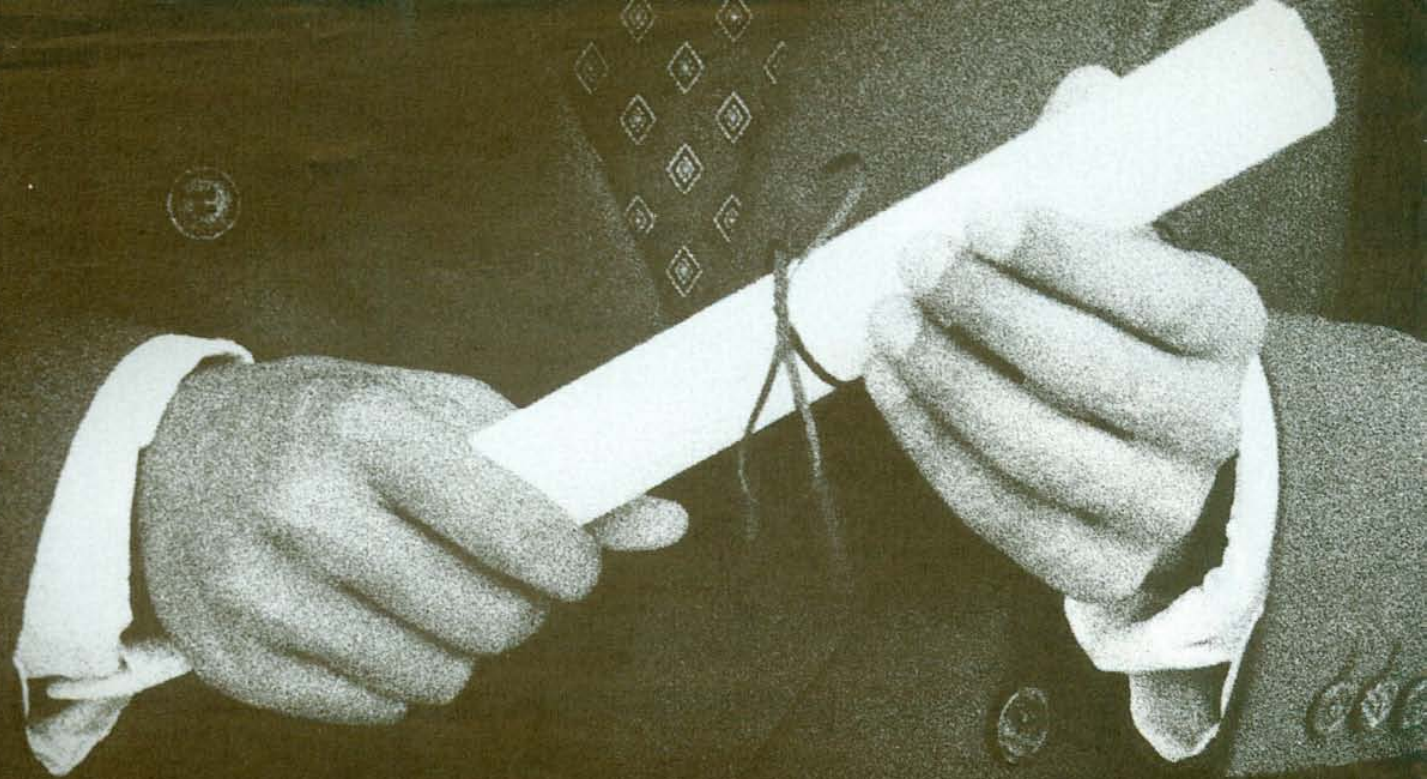
오른쪽(그림): 게리 캡,

예수께서 그들을 낱말이 고쳐주심

"... 온 무리가 일제히 병든 자와 고난을 당하는 자와 절름발이와 장님과 병어리와 온갖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려 오매 예수께서 그 앞에 데려온 자를 낱말이 고쳐 주시니라."

(니파이삼서 17:9)





단지 한 학생만이

비트리즈 이스터 페레즈 꼬르테스

1974년, 저는 열일곱 살의 나이로 칠레의 산티아고에 있는 마에푸 지부의 세미나리 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6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부의 경계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었으므로 어떤 학생들은 세미나리에 오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만나는 곳인 난방 시설도 없는 낡은 집에 가기 위해 25블록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부름으로 매우 흥분되어 있었으므로, 그 낡은 집도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할 때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으며 학생들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자 참석율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계속 참석하도록 고무시키는 재활동 촉진 계획을 짰습니다. 그 계획은 한동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학생들이 오기가 힘들게 되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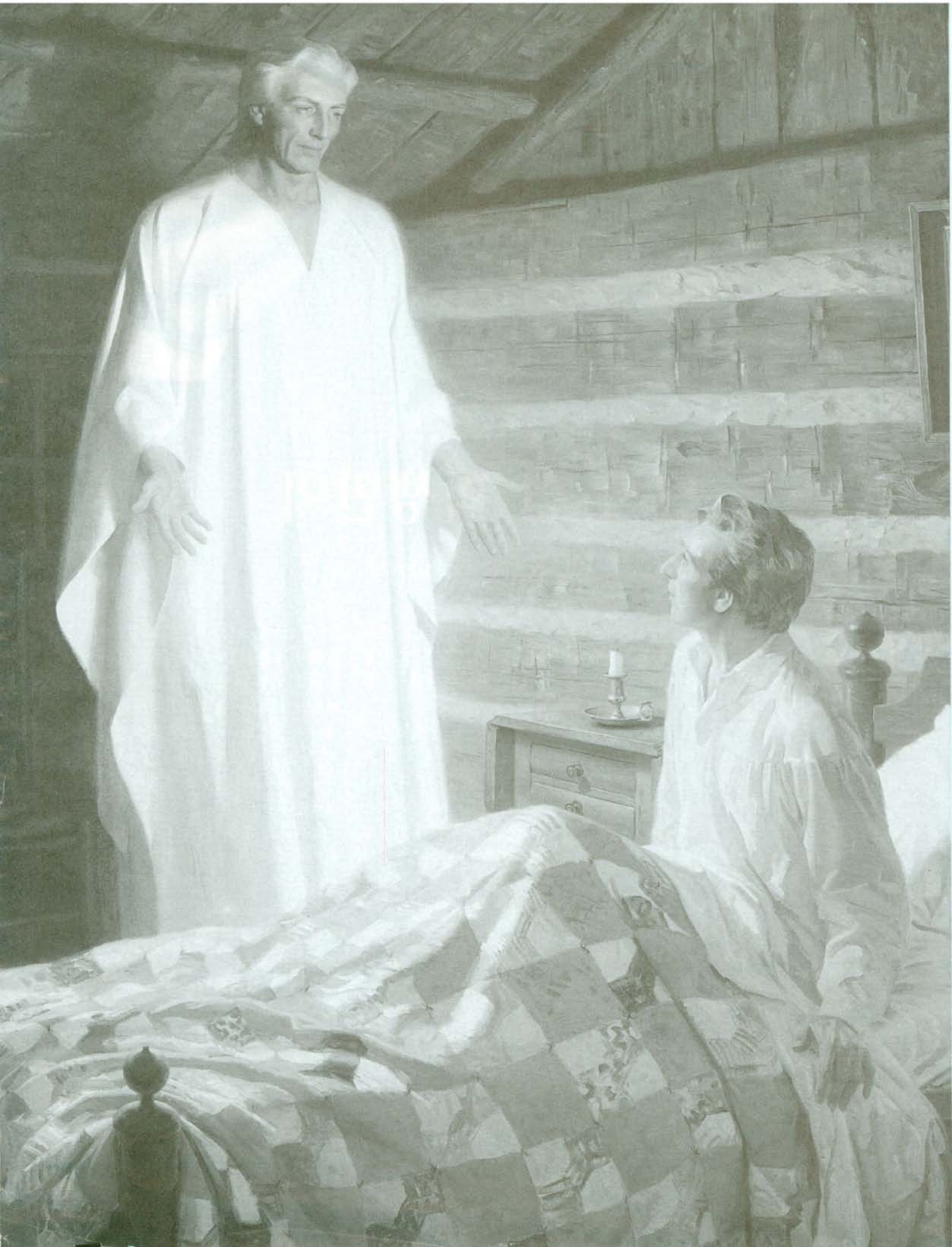
얼마 후엔 세 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비록 가르치는 경험은 부족했지만 신앙과 간증을 가지고 계속 열의를 다해 헌신적으로 매 공과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교실로 올 때 저는 거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가깝게 계심을 느끼고 기도하면서 걸어 왔습니다. 교실에 도착할 즈음 저는 영으로 가득 차서 마치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있는 양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감 부족으로 세미나리 반을 계속해야 할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한 경우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부 모임에서 각 지부의 세미나리 학생들의 출석 상황을 조사할 때였습니다. 마에푸 지부의 이름이 불리어졌을 때 우리는 저와 한 명의 학생이 모두인

두 명만이 출석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는 창피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반을 중단하게 해달라고 지도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곧 고요한 영의 영향력이 저를 감싸 계속할 것을 중용했습니다. 저는 세미나리 반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미나리 졸업식이 있던 날, 마에푸 지부의 학생 세 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페드로 바에온만이 수료증을 받으러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참석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봉사한 것에 보다 깊은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해는 페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의미 있는 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페드로 바에온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의 생애에 있어 가장 영적인 시기 중 하나였던 그 때를 잊은 적도 없습니다. □





엘리아의 영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이 경륜의 시대가 열리던 때에 교회의 주목할 만한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한 예언이 1823년 9월 21일 저녁에 모로나이가 소년 요셉 스미스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의미 심장한 사실입니다. 요셉이 드린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방에 밝은 빛이 채워져 마침내 “한 낮의 햇빛보다 더 밝아”졌을 때(요셉 스미스 2:30). 공중에 선 한 인격체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17세 된 소년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는 하나님께서 신 곳으로부터... 보내진 천사 모로나이임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그의) 이름이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 리라고 말하였습니다.”(33절)

이어 그는 물문경 기록에 관하여 언급하였는데, 물문경에 관해 상세히 이야기한 후, 말라기의 말씀들을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들은 흥정역 성경과는 다소 다르게 인용하였습니다.

그는 이같이 선언하였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예언자 엘리아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38-39절)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선언, 즉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사업에 관한 말라기의 이 놀라운 말씀을 소년 요셉이 언덕에서 금판을 취하도록 허락 받기 4년 전에 모로나이 천사가 그에게 되풀이해서 말씀했다는 사실은 나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말씀은 요셉 스

미스가 아론 신권이나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받기도 전에, 그가 침례 받기도 전에, 교회가 조직되기 훨씬 이전에 주어졌습니다.

이는 주님의 계획에 있어 이 사업의 우선 순위에 관해 시사해 주는 바가 큼니다.

1836년에 엘리아는 이 사업을 위한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가족 역사에 관해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독생자로 말미암은 속죄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계획하신 전능자,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업을 중요히 여기시고 계시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 땅을 창조하여 그 위에 사람을 두신 그분의 모든 목적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무용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요셉 스미스 2:39 참조)

오늘날 세계에는 많은 계보 및 가족 역사 협회들이 존재합니다. 이 연구 학회들은 모두 엘리아의 방문이 있은 이후에 설립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유서깊고 명망이 있는 계보 협회의 하나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돌아가셨던 1844년에 설립된 뉴 잉글랜드 히스토리컬 계보 협회입니다. 그 때로부터, 특히 근년에 와서 가족 역사에 관한 관심이 놀라우리 만큼 고조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고조된 관심에 발맞춰 교회의 가족 역사 분과는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성장해 왔습니다.

1894년에 유타 계보 협회가 조직되었을 때, 창립 회원들이 계보 관련 서적 11권을 기부했습니다. 이 최초의 11권에서 오늘날에는 258,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달 천여 권의 책들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소장품중에는 마이크로 필름 190여 만 개도 포함되어 있는데, 매달 5,000여 개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가족 역사 자료로 가장 방대한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금세기 초에는 오직 소수만이 보잘 것 없던 교회의 가족 역사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 5년 간 매해 7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가족 역사 주 도서관 및 전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2650개소의 가족 역사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가족 역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약 40% 정도와 그밖의 각지에 있는 가족 역사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중 60% 정도가 이 교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가족 역사의 보고와 비견될 만한 곳이 거는 곳에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지닌 주님의 교회이며, 교회가 지닌 목적중 하나는 죽음의 장막 저편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충만한 축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가족 역사 기록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왜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가 엘리야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 곧 이 사업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 대부분은 단지 강한 호기심에 끌려 할 뿐, 그 일의 참된 목적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굉장한 시간과 돈을 들이는 데는 반드시 어떠한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엄숙히 증거하는 바, 그 목적이란 모든 세대에 걸친 죽은 자들의 신원을 밝혀 그들을 대신해 그들의 영원한 축복과 진보를 위한 의식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 역사 사업의 참된 목적을 오로지 주님의 집,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전에서만 명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족 역사 연구 사업이 진척되고 성장할수록 거기에 맞추어 성전 건립도 늘어날 것입니다. 지난 12년간 건립되고 헌납된 성전이 그 이전까지 건립되고 헌납된 모든 성전보다도 더 많습니다. 지금은 성전 건립과 성전 활동이 한창인 위대한 시기입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아름다운

교회의 가족 역사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가족 역사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진 촬영: 제드 클라크



성전 몇 채가 헌납되었습니다. 건립 도중에 있는 성전이 열 두 채 정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전을 갖기에 합당하다면 주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러한 성스러운 건물을 짓도록 허락하시며 또 그렇게 지시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합당성은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사업을 행하는 데 토대가 되는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느냐 하는 진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구원의 사업입니다. 누구를 위한 구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용과 아들의 대속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들의 노력에 관계없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한 희생과 그의 무한한 은총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개인의 직접적인 행위나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 행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가족 역사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의식을 통해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활동보다도 주님의 희생의 영에 가까워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감사나 보상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돈을 들여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위대하고 우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1907년에 세상에 공포한 연설문에서 그 당시 대관장단은 이 사명을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의 목적은 보잘것 없는 현세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인류를 불사 불멸의 존재로 여기며, 그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함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는다. 영원처럼 광대하고 하나님 사랑처럼 깊은 이 사업을 위해 우리는 현재와 영원토록 우리의 신명을 바친다.”(제임스 알 클라크 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6권(1965-1975), 4:155) □

(이 글은 1994년 11월 13일 인공 위성을 통해 방송된 연설문으로써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의 영령을 추모하고 동시에 오늘날의 가족 역사부의 전신인 유타 계보 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연설문을 개작한 것임.)



사진 촬영: 글렌 아들러

여외이 성전의 침례당.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판권 소유. 무단 복사를 금함.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의식을 통해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활동보다도 주님의 희생의 영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기이한 일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볼로스 수아레스

1973년, 내가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죽은 자를 위한 구속의 교리가 마음속 깊이 와 닿았다.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 된 나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대리 사업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당시 나는 아스투리아스에서 약 500킬로미터 떨어진 마드리드에서 살고 있었다. 아스투리아스는 내가 태어난 곳 이었고, 조상들의 기록 대부분이 그곳에 있으리라 추정되는 곳이었다. 나는 휴가며 주말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조상들의 기록을 찾고자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여행하였다. 때로는 해독하기 힘든 고문서에 파문헌 성당의 교구 사무실로 찾아가 온종일 틀어 박혀 있곤 하였다.

조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이러한 불편을 이겨내는 데 힘이 되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찢긴 책과 페이지를 보수하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문서를 찾아 읽을 수 있었다. 천주교 교구 사무실의 기록을 비롯한 행정 문서, 가족 기록서, 유언장, 신문이나 사진 등을 통해 조상들의 삶을 마음에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조상들의 삶을 어느 정도 접하게 되면서 그들의 행복에 기뻐하고 그들의 슬픔에 가슴 아파하였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런 진척을 이룰 수 없는 듯한 시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너무나 많은 기록들이 훼손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스투리아는 스페인 역사상 가장 빈번하게 전쟁을 겪은 곳 가운데 하나였다. 격전을 치르는 동안 수많은 기록들이 멸실되었다. 나는 가족 자료들을 이용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손쉽게 가족 역사 연구를 행한다는 생각이 들때면 때론 낙담하기도 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적적으로 찾아낸 사람들의 기사를 리아호나에서 읽기도 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는거지? 내가 필요로 하는 기록이 어디엔가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1994년에 나는 다시 한번 휴가를 내어 어떤 지역에 있는

교구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마치고 났을 때 얻은 소득이 아무 것도 없었다. 나는 깊은 실의에 빠졌다. 지난 20년 간 내 모든 휴가를 기꺼이 바쳐, 수천 킬로에 해당하는 거리를 여행하며, 산더미처럼 쌓인 책 더미를 파헤치며, 수백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돈도 쏟아 부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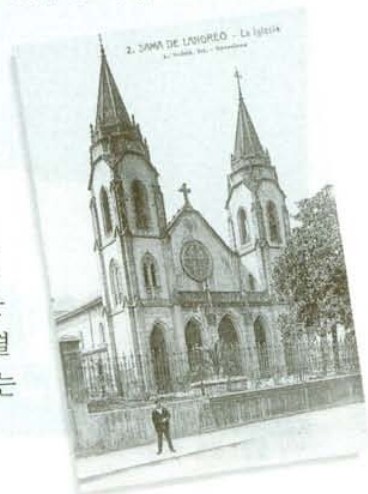
내와 나는 마드리드로 돌아가기 위해 가방을 꾸렸다.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한번만 더 시도해 보겠다는 결심을 했다. 예전에도 이미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 어느 한 교회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이 번에는, 어떤 문서를 조사하던 중에, 내가 그토록 찾기를 원했던 그 이름들과 날짜들이 눈 앞에 드러났다! 다리가 힘없이 풀리고, 입에서는 즐거운 비명이 새어 나왔다. 눈물이 하염 없이 쏟아져 앞을 가렸다.

이름들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기에 그 때까지 여러 차례 시도를 하면서도 내가 원하던 자료를 찾아 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일단 발견하게 되자, 이 소중한 기록을 통해 전쟁 중에 소실되지 않은 또 다른 자료들로 찾을 수 있었다. 그러한 기록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제,

이 조상들을 위한 성전 사업의 길이 열린 것이었다.

나는 마드리드에 돌아오는 동안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니파이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하시지 않으시고는 결코 우리에게 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조상들을 위해 스위스 성전(위 쪽)에 참석하고
싶은 강한 욕망은 레볼로스 형제(오른쪽)가
20년 동안이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어느 한 교회 (아래 좌측)를 포함한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가족 기록을 탐구하도록 했다.



회개의 시간

크리스토퍼 챗윈드
그림: 브라이언 리 쇼우

원하는 간증을 얻기 전에 저는 먼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 미셸과 사귀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라곤 그녀가 어떤 다른 친구들보다 더 굳건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그 뒤 그녀의 집에서 열리는 가정의 밤에 초대받고 나서야 그녀가 물몬이란걸 알았습니다.

이 가정의 밤에서 저는 두 명의 훌륭한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소개받았습니다. 복음 토론을 들어 보겠느냐고 그들이 물었을 때 저는 낯설지만 평온한 느낌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래서 수락했습니다.

토론을 받아 들이고 궁금하게 여겼던 점들이 해결된 후 저는 침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해 좋은 느낌은 들었지만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된가?”라는 의문에 대한 응답을 위해 필사적으로 탐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지만 쉽사리 응답을 얻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때 데이비 윌슨이란 교회 형제를 만났습니다. 많은 시

간을 보내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경전을 읽은 후에 우리는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었으며, 데이비 형제가 먼저 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다음으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막 기도를 시작하자 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해라, 단지 용서만을 구해라.”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렸습니다. 그러자 따뜻하면서도 흥분된 느낌이 양팔을 타고 내려와 가슴을 관통해 오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복음에 대한 저의 간증은 더욱 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침례 받은 지 정확하게 일 년 하고 2일 만에 저는 호주의 퍼스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고 뉴질랜드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 갔습니다. 이제 저는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사람들과 똑같이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간증을 전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



기도: 예배의 본질을 규정짓는 행위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북아시아 지역 회장)

구 세주께서는 물론경에서 기도에 대해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거듭 해서 니파이 백성들과 기도하셨으며 그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몇 번이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뒤에 주님은 니파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범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행여 마귀가 너희를 꾀어 사로잡을까 염려함이라.”

“또한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교회에서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기도하라. 보라 나는 빛이라 내가 너희의 분이 되노라.” (니파이삼서 18:15-16; 또한 니파이삼서 18:24; 19:17-34; 27:21 참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이 백성들에게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적어도 10번 이상 특별히 가르치셨습니다. (니파이삼서 18:19; 니파이삼서 13:6-9; 17:3; 18:20-21, 23; 20:31; 21:27; 27:2-7, 9, 28 참조)

그리스도는 사람이 온전케 되는 과정에서 기도란 절대적인 요소로서, 특히 초기 과정에서는 더욱 더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복음이 회복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흠어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참으로 아버지와 더불어 흠어졌던 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그 행하심이 시작되어, 저들로 내 앞에 이르는 길을 준비하게 하시며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게 하시리라.” (니파이삼서 21:27)

그 외에도 주님은 교회 회원인 우리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니파이삼서 18:23-30 참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축복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해력을 넓혀 주시도록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니파이삼서 18:23-30 참조) 물론 주님은 자신과 같은 완전한 사람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기 위해 발전해 가는 동안, 기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우리가 일단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혼자서, 또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혹은 마음속으로 자주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간구하도록 권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니파이삼서 18:20)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이 백성들에게 기도는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관용을 얻기 위해 간구하는 수단 그 이상의 것으로, 오히려 기도 그 자체는 의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행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의 행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 우리는 개인으로나 집단적으로 변화되고 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축복을 확보하는 것이다.” (753쪽)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아버지께서 바라는 것들을 잘 조화시켜, 우리가 구하는 축복과 아버지와 더욱 잘 연합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됩니다.

(이 기사는 199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가 하신 말씀이다.)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교리와 성약 121: 7)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대로의 당면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것은 채무를 갚는 과정에서 느끼는 중압감일 수도 있고 영원한 동반자를 찾아 고심하는 일에서부터 안정된 결혼 생활을 영위하며 충실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으며, 예기치 않았던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독감일 수도 있다. 사실상 우리가 육신으로 경험해야 할 한 부분이 바로 시련을 겪는 일이다.(니파이이서 2:11~12절 참조)

그러나 우리는 역경을 홀로 마주할 필요가 없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우리에게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사를 바르게 하시며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한 목적을 심어 주려 하신다는 것을 의심없이 믿는 단순한 신앙”(엔사인, 1984년 7월호, 6쪽)을 키우라고 권고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음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라는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머빌 메이어는 어머니가 93세로 돌아가셨을 때 이 은사를 받았다. 무남 독녀인 머빌은 어머니의 죽음이 매우 슬펐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이 고령의 나이로 인한 제약과 고통을 덜어 주는 축복이란 것을 깨닫긴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하던

지난 시절이 그리웠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머빌은 봄 작물을 심기 위해 뜰을 손질하던 중 주일날 가르칠 상호부조회 공과를 마음에 떠올려 보았다. 그 공과는 복천년 동안 지구가 누릴 낙원의 영광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공과에 대해 기도했었지만 깊고 어두운 땅 속에 묻혀 있는 어머니의 시신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웠다. 머빌은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가운데 그녀는 영의 영향력을 받았다. “저는 공과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손질하고 있는 이 땅이 어머니의 육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 땅과 같은 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색의 기름진 흙 속에 손을 넣어 보았을 때 저는 생명의 소생, 즉 부활에 대한 마음속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평안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강화시키실 수 있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마음과 성의를 다해 그분의 영의 도움을 구한다면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강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봉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정신은 영의 인도에 집중할 수 있다. 성찬을 취함으로써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해 주는 성약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축복사의 축복 및 신권의 축복은 사물을 윤택하게 조망해 보게 하고 통찰력을 준다. 우리는 상호부조회에서 자매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아름다운 우정과 동정심을 발견할 수 있다. 아름다운 음악과 고무적인 문학 작품은 우리를 위로해 주고 강화시켜 준다.

이러한 행동 히니히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의지와 결합하여 주님을 우리의 생활로 모실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주님의 돌보심 의지하여 날 사랑하심 아오니 성실한 맘으로 주 뜻 행하고”(찬송가, 146장) 이처럼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분의 약속을 얻게 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한복음 14:18)

• 신앙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복음 원리를 생활화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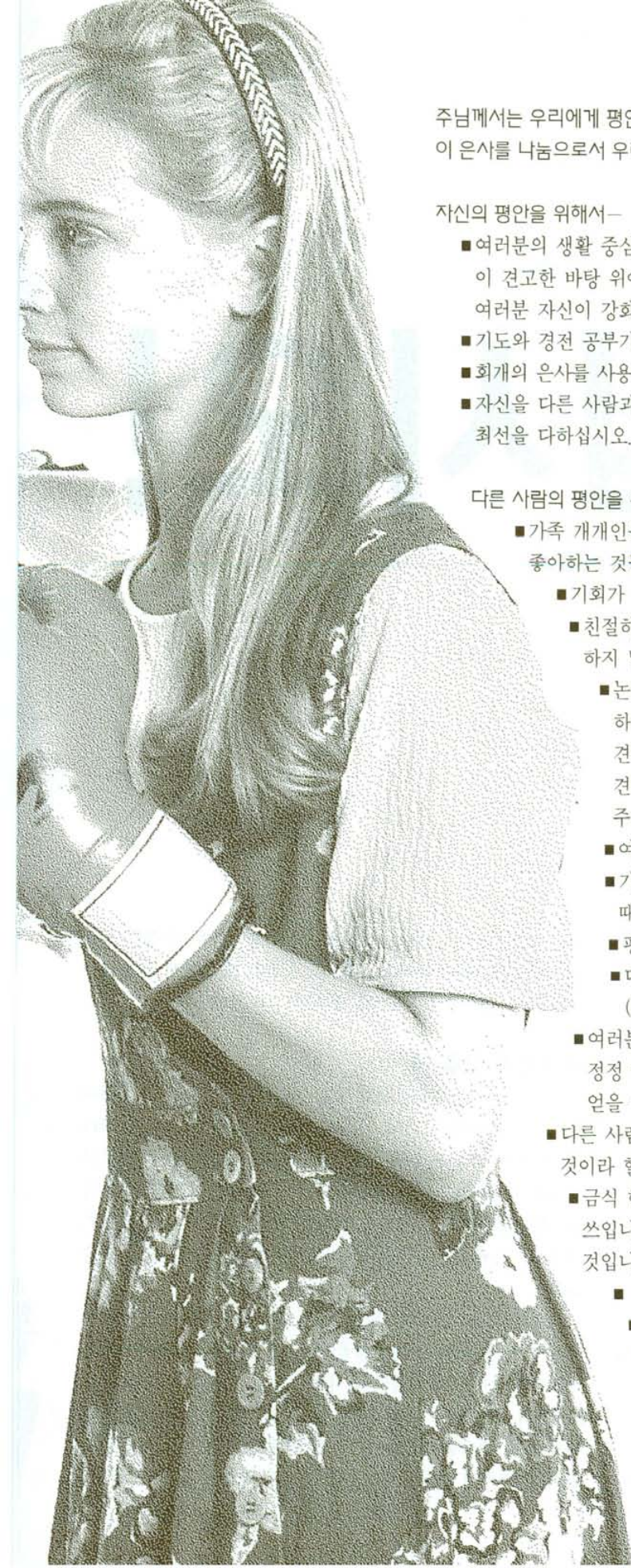
•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위안과 평안을 얻도록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

평안을 지님

테머러 리덤 베일리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27참조)
이 은사를 나눔으로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 여러분의 생활 중심에 그리스도가 거하도록 매일 매일 노력하십시오.
이 견고한 바탕 위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것이며 어떤 활동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강화될 것입니다.
- 기도와 경전 공부가 일상 생활의 일부분이 되게 하십시오.
- 회개의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참된 평안은 근심 없는 마음에서만 가능합니다.
-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항상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 가족 개개인을 인정해 주고 사랑하십시오. 각 개인에게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해 내어 그러한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 친절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아무말도 하지 말라.”라는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 논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게 하십시오. 다양성은 생활에 활기를 줍니다. 모든 사람의 견해에 다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견해를 가질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 여러분 자신의 견해는 조용히 피력하십시오.
 - 가족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차례가 되었을 때는 가족의 평안과 사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평안을 주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십시오.
 - 다른 사람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 주십시오.
(신앙개조 제11조 참조)
-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어 보이십시오.
정정 당당한 운동 정신, 정직, 공명 정대한 경기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봉사하는 행위는 설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 금식 현금을 내십시오. 이 돈은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입니다. 이 현금은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한 자들을 용서하십시오.
 -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 매일 복음을 전파하고 기회가 오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널리 보급시키십시오. □

꽂

붙드십시오!

제임즈 엠 패러모어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그림: 그릭 뉴볼드

프랑스 파리에서 봉사하던 젊은 선교사 시절에 저는 에펠 탑의 102층 꼭대기에 길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탑은 국제 박람회의 일환으로 188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꼭대기 층 둘레의 보호벽이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죽은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와 철망으로 된 높은 보호 벽이 설치되어 사실상 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람 부는 날에는 그 탑 꼭대기가 60센티미터 정도까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날에 거기에 있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방문자들은 그 보호벽 덕분에 꼭대기층을 마음대로 거닐 수 있으며 수 킬로미터 밖을 내다볼 수 있고 어느 방향에서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항상 안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보호벽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며 크게 안심시켜 줍니다. 방문자들은 보호벽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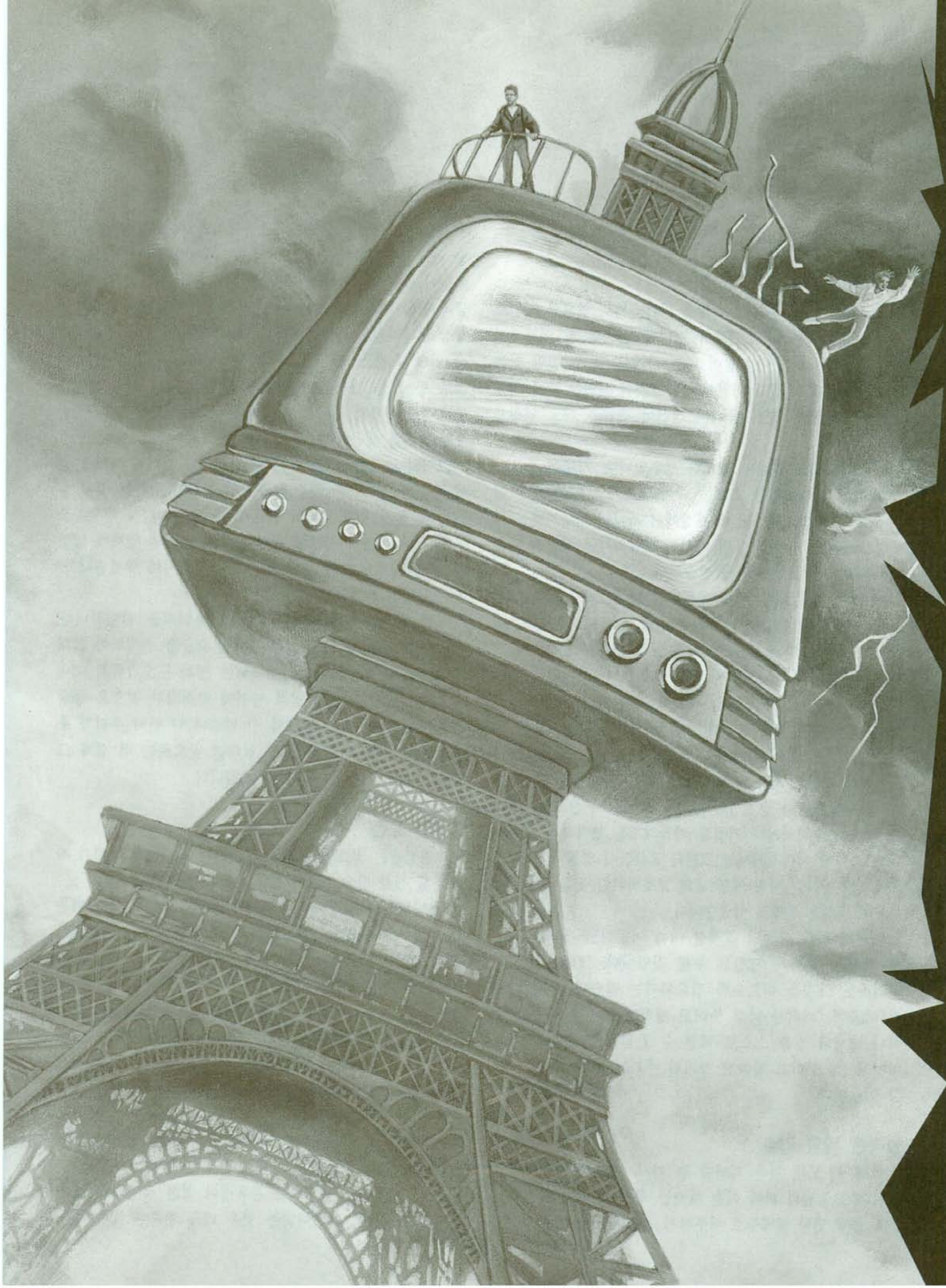
그 보호벽처럼 표준들은 영적 및 육체적 상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경계선들입니다. 모든 것에는 표준이 있습니

다. 그 표준들은 우리가 지상에 온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활 곳곳에 실재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며 행복하게 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경계선이 없을 때

한때 우리 큰 딸은 아기 보는 이가 미처 못 보는 사이에 저 혼자 마음대로 기어 가다가 마루 난로의 쇠살판을 지나면서 크게 화상을 입은 일이 있습니다. 그 쇠살판은 너무나 뜨거워서 화상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딸아이의 다리는 마치 와플케이크처럼 보였습니다. 그 난로는 보호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애에겐 아직도 그 사고로 인한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조그만 낡은 집에 산 적이 있는데, 그 집은 견고한 지반을 위한 지침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은 집으로 얼마 안 있어 마루바닥들이 사방으로 꺼져 내려갔습니다. 그 뒤 우리 아들들이 집을 지을 때는 이러한 지침들을 엄격히 준수하여,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땅부터 다지는 일에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집은 오래 갈



것이며 그 중압감도 잘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육체와 마찬가지로 영체와 정신도 그것들이 취하는 대로 만들어 집니다. 최근의 한 여행에서 아내와 저는 늘 마시던 물이 바뀐 관계로 몇 주 동안 앓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취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영은 육체와 정신이 취하는 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영체는 영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은 분리됩니다. 육체는 죽어 버리지만 영은 계속 살아 있으며, 소망스럽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표준들을 선택하는 데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 올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땅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꼈던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안전감을 느끼고 보호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표준이나 경계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마련해 주신 길이 남을, 참된 표준들이 늘 우리들 곁에 있다 라는 사실에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 위대한 보호책을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자유 또한 주셨습니다. 즉 그분께서는 그분의 방법과 표준과 경계선과 영감과 지시를 주신 다음 우리가 그것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자유의지를 행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표준들이 영원히 변치 않으며 믿을만하여 마치 에펠 탑의 보호벽처럼 진실로 우리를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규정된 경계선 내에 머문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며, 나아가 평안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되지는 않습니다. 옛 예언자 야곱이 “너희가 너희 뜻대로 행하여 영원한 죽음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스스로 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니파이서 10:23)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과학 기술

이제 이 모든 것은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줍니다. 오늘날의 과학 기술 세계는 과거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놀랄 만한 발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을

증가시키고 이해와 발전을 더 높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 방송 매체의 경우는 거의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급속도로 발달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44년 전에 선교사로 봉사했는데 그때는 실상 텔레비전도 몰랐습니다. 이제 머지 않아 많은 방송국이나 기타 출처로부터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전화 및 컴퓨터 정보 등, 모든 가능한 형태가 단 하나의 투명 섬유 조직을 통해 가정에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 및 건전한 오락을 대폭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비디오나 음악이나 기타의 매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우리의 정신이 취하는 것에 영향을 줄 좋지 못한 오락의 길도 열어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가정의 사생활 전면에 걸쳐 우리의 영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들이 표준들을 강화시켜 주겠습니까? 아니면 약화시키겠습니까?

이들 발명들은 철저히 우리의 자유의지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보는 이가 있는 없든 교회의 표준을 선택하여 그대로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제공되는 영화나 오락물의 60내지 70퍼센트가 우리의 영적 발전에 부적합한 것으로 등급판정이 난 지금 표준을 택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의 표준들을 지금 지킬 수 있다면 앞으로는 더 쉽게 그것들을 계속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백한 표준

대관장단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란 책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문 방송 매체의 표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일성도로서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신앙개조 제13조)을 추구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읽든지, 듣든지 또는 보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문 방송 매체와 연예 오락물은 훌륭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며, 신하고 도덕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며,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옳지 못하고 악한 것을 정상적이고 아주 재미있으며 합당한 것으로 보이게도 합니다.

“특히 외설물은 위험하고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외설물을 가까이하는 것은 더욱 저속한 것을 좇아

주님이 세우신 표준과 경계선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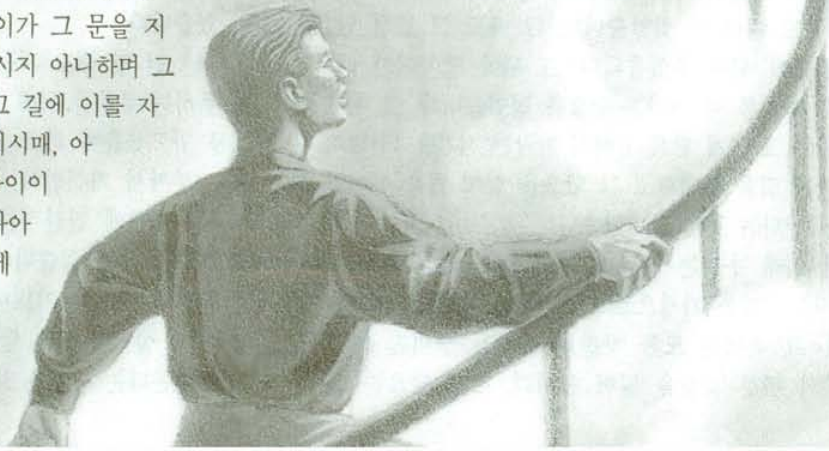
"보라 사람을 위한 길은 좁으나 사람 앞에 바르게 놓였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 문을 지키시느니라." (니파이서 9:41)

결국 성적인 죄를 짓게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외설물을 계속 보게 되면 여러분의 영과 양심이 무감각해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외설물을 읽거나 보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자신의 자제력을 약하게 하는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음악회, 영화, 비디오 등 어떤 형태의 오락이든 조금이라도 저속하고 부도덕하며 합당치 않고 외설적인 것이면 결코 보거나 참석하지 마십시오. 영화에 대한 평가가 언제나 올바른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표준에 맞지 않는다면 영화관에서 걸어 나오거나 텔레비전을 끄거나 라디오 채널을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외설적이거나 부도덕한 것을 합당한 것처럼 보여 주는 책이나 잡지를 읽지 말고 그런 사진도 멀리 하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영화나 책 또는 기타 어떤 오락물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것이면 무엇이든 보거나 읽거나 거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11~13쪽)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표준들과 경계선들을 따르면 구원과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 표준들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를 알게 해 주는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길ियो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 14:6)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나아와 주의 길이 의로움을 기억하라. 보라 사람을 위한 길은 좁으나 사람 앞에 바르게 놓였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 문을 지키시느니라. 주께서 그곳에 종을 두시지 아니하며 그 문을 지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그 길에 이를 자가 없나니, 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시매, 아무도 그를 속이지 못하리도다" (니파이서 9:41) 라고 한 말씀처럼 주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 표준들과 경계선들을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



코바늘 뜨개 담요 밑에서

잔 머레이 스미스

기도나 친절한 말이나 코바늘 뜨개 담요 같은
간단한 것들이
집을 가정으로 만들어 줍니다

4년 전 결혼 당시 남편과 저는 친정 부모님의 절친한 친구로부터 코바늘로 뜨개질한 담요 한 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 결혼 선물을 만드는 분이 계심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과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났습니다. 때는 12월이었고 겨울의 그 냉기로부터 저의 두 다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준 것은 바로 그 뜨개 담요였습니다. 저는 그 담요의 부드러운 결을 쓰다듬으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상상해 보곤했습니다.

우리의 첫번째 집은 조그만 모텔 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전기 냄비로 음식을 요리했으며 그것을 창턱 위에 올려놓고 차게 식혔습니다. 그 때 그 뜨개 담요 덕분에 딱딱한 콘크리트 방에서도 더없이 소중한 가정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두 번째 집은 산 속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그 해 겨울은 몹시도 추웠습니다. 남편은 새벽 한 시까지 일했으며 전화도 없었고 장작 난로는 겨우 방 하나를 데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첫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밤중에 들려 오는 소리에 놀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때도 그 뜨개 담요는 저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뒤에 딸아이가 태어나 이제는 그 아기를 꼭 껴안고 담요를 덮었습니다. 그 후로 매번의 임신은 그 뜨개 담요 밑에서 안락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 담요를 함께 덮을 아이가 한 명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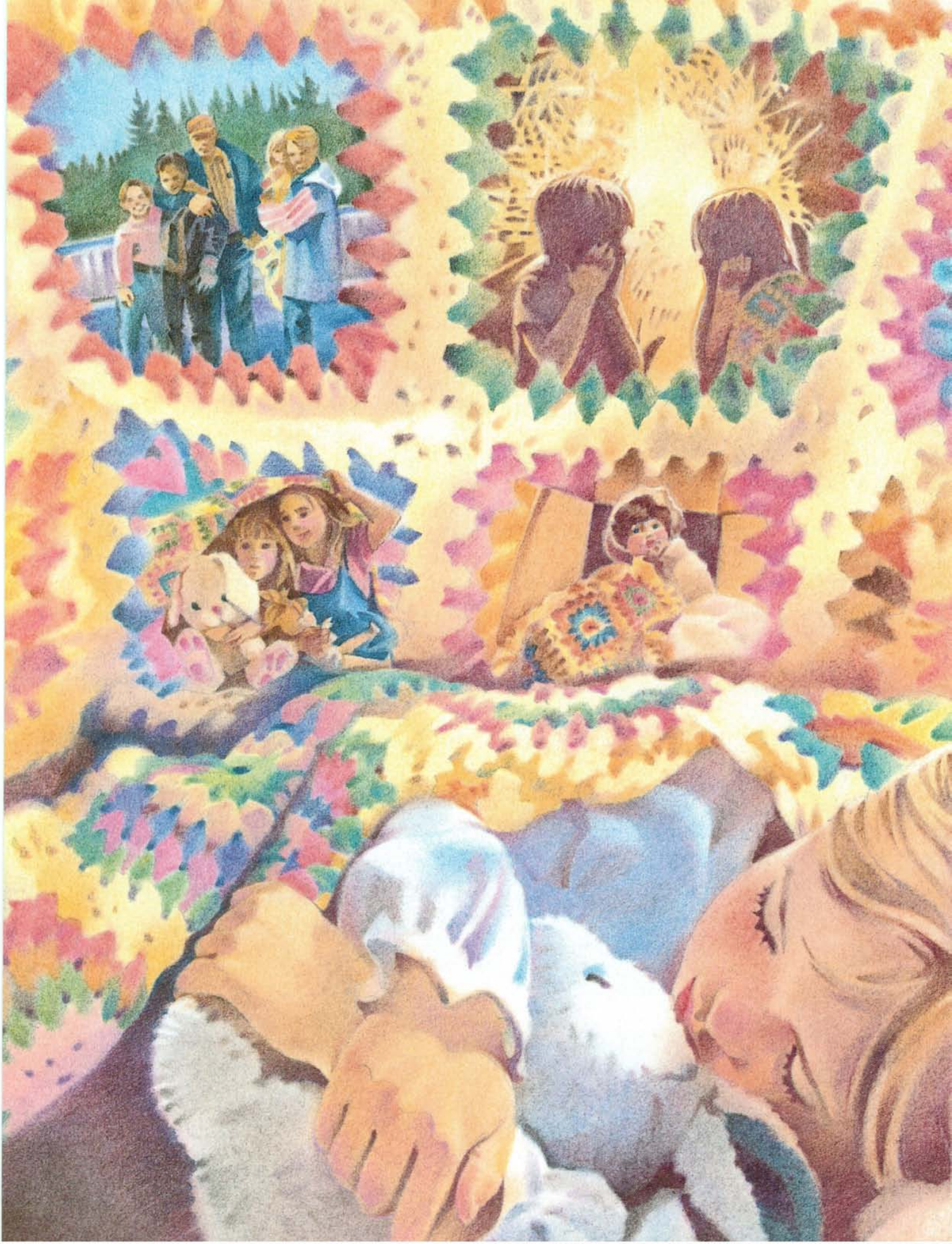
결혼한 이래 우리는 열다섯 번이나 이사했습니다. 이사 때마다 저는 "집을 가정으로"라고 적힌 특별한 상자를 포장하는데, 그 속에는 모든 사진과 새집을 꾸미는 데 필요한 그 밖의 귀한 것들을 넣어 둡니다. 뜨개 담요는 맨 먼

저 포장되어 여행하는 동안 그 상자 속의 모든 것을 보호해 줍니다. 이 상자는 우리가 짐을 푸는 첫번째 상자들 중 하나입니다.

그 뜨개 담요 덕분에 저는 종종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더 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픈 아이나 추워 보이는 아이를 그 담요로 덮어 썩워 주곤 했습니다. 조부모님을 방문하러 시골을 여행할 때에도 우리는 서로 껴안고 그 담요를 덮습니다. 독립 기념일의 불꽃놀이나 가을철 구기 경기를 구경할 때, 그리고 여름날의 야영 여행에도 그 뜨개 담요는 함께 해왔습니다. 손님들이 우리 집에 묵을 때 그 담요는 손님에게 방을 내주고 마루에서 자는 어린이 두 명이나 소파 위의 어른 한 명을 덮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일주일, 야영지에서 나흘을 보냈으며, 아이들의 자랑거리로 유치원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담요를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며 천막으로, 또는 "킵킵거리며 웃어대는 괴물"의 분장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받았던 토스터 기나 믹서, 찜냄비 및 크리스탈 주전자들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제 뜨개질 담요도 더 이상 새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따뜻한 것은 여전합니다. 가끔 저는 그 담요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년 전 만 해도 저는 우리 부모님의 친구가 왜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부를 위해 그토록 많은 시간을 바쳐 그 뜨개 담요를 만드셨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께서 자신만의 친절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터득한 가사에 관한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선물은 우리가 인생의 과제들에 직면할 때 기도나 경전 읽기나 음악이나 포옹 및 친절한 말, 심지어 뜨개 담요와 같은 간단한 것들이 집을 가정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



푸에르토리코의 기쁨에 찬성도들

방문객들은 이 섬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러나 이곳에 사는 말일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래린 포터 곤트

사진 촬영: 데이비드와 래린 곤트

푸에르토리코의 자동차 번호판에는 “푸에르토리코-매혹의 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정말 이 섬에 딱 맞는 말이다. 실제로 푸

에르토리코는 폭 260킬로미터, 넓이 90킬로미터에 불과한 크기지만 매혹적인 광경으로 가득 차 있다. 북쪽의 루구이오 산맥에 있는 1,100미터 높이의 엘훈케 열대 다우림에서 남쪽의 약간 건조한 지방까지 어느 곳에서든 산이나 해변, 또는 그 두 가지 광경을 다 볼 수 있다. 일년 내내 섭씨 15도에서 32도 정도를 유지하는 기온을 즐기기 위해 관광객들은 날마다 비행기와 순항선을 타고 몰려든다. 해변의 모래밭을 따라 우뚝 서있는 야자 나무들이 바람에 일

렁거리고 야자잎이 살랑대는 소리는 꽃향기와 뒤섞인다. 낮으로는 수영이나 보트 타기 또는 일광욕으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여흥으로 인한 웃음 소리와 음악이 끊임없이 유희한다. 그래도 이곳에 사는 말일성도들은 교리와 성약 101편 36절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배워 왔다. “이 세상에서 너희 기쁨은 가득 차지 아니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니라.”

카보 로조의 가구 제작자인 올란도 일리사리는 이렇게 말한다. “저



는 친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활에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인 이르마와 제가 세 딸들에게 영원히 가치있을 무언가를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느낌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그랬기 때문인지 선교사들이 저희 집에 왔을 때 마치 제가 그들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복음은 저의 생활에 기쁨을 주고 있으며 제

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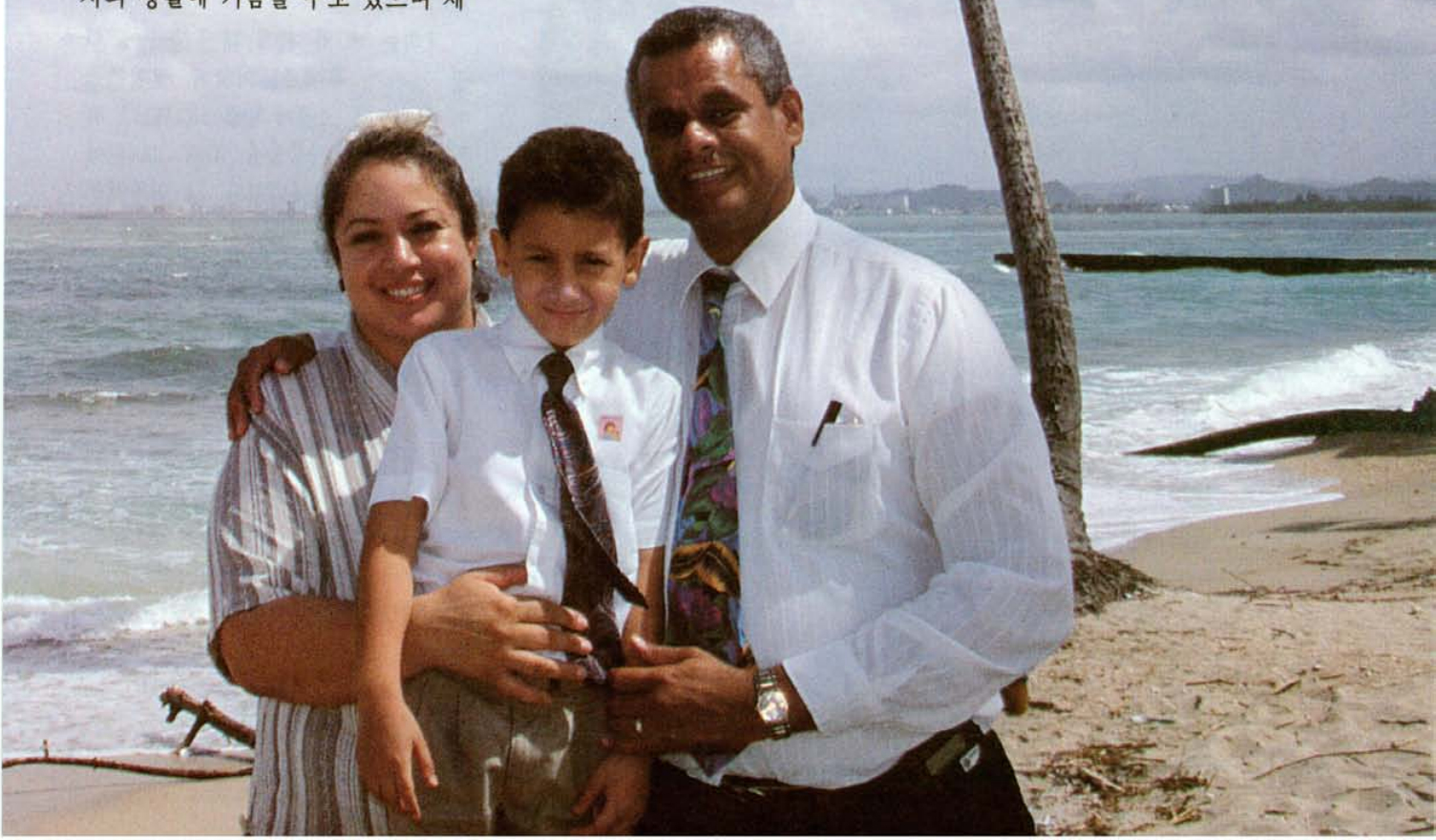
푸에르토리코에 사는 14,000명의 다른 말일성도들도 그와 똑같은 기쁨을 발견해 왔다. 이곳에는 8개의 지방부와 52개의 지부가 훌륭하게 서있다.

푸에르토리코의 기원

1493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북미와 남미 사이에 일련의 섬들이 등글게 줄지어 위치한 서인도 제도로 향해해 들어갔다. 그는 그것을 스페인 왕국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큰 섬의 해안에 발을 내디딘 콜럼버스는 그것을

브루니와 호세 모렌은 아들인 알비와 함께 바이아몽 지부의 지도자로서 헌신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뒤로 산 후앙의 지평선이 펼쳐져 있다.





산 후양 바티스타(성 침례 요한)라고 명명했으며 1508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금과 사탕수수에 이끌려 이주해 왔으며 결국 그 섬은 “풍부한 항구”라는 의미의 푸에르토리코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 푸에르토리코의 다채로운 역사에는 해적에서부터 사탕수수 농장까지 모든 것이 등장한다. 스페인, 영국, 아프리카,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및 다른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며 따라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누리게 되었다. 1898년,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이 끝나자 푸에르토리코는 미합중국의 영토가 되었다.

교회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에 미군 기지가 푸에르토리코에 세워졌을 때 처음으로 그곳에 발을 내디뎠다. 말일성도 군인 가족들을 위해 1956년에 최초의 지부가 세워졌다. 그 지부에서는 영어가 사용되었는데 섬 전체에 단 두 명의 선교사만이 봉사하고 있었다.

마리아 크리스티나 소사 버크는 최초로 침례 받은 푸에르토리코 인 중 한

왼쪽: 마리비드 알바라도는 전통 민속 무용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폰세 지부의 십대 중 한 명이다. 37쪽 위의 왼쪽: 카보 로조의 올란도와 이르마 일리사리

위의 오른쪽: 아로이요의 코스메 가족.

아래쪽: 폰세 플라자의 시원한 분수



명이다. 말일성도 군인의 아내였던 마리아는 1956년에 침례 받았다. 그녀의 아들들도 8세가 되었을 때 침례를 받았다. 장남 윌리엄은 푸에르토리코의 첫 선교사 중 한 명으로서 1969년에 우루과이의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1980년 대에 많은 푸에르토리코 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함으로써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회원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회원들보다 많아졌다. 산후앙(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카롤리나, 폰스, 마이아구에스 시에 스테이크가 세워졌다. 회원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톱 페리 장로가 1993년 12월에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하여 이 4개의 커다란 스테이크를 보다 관리하기 쉬운 크기인 8개의 지방부로 나누었다. 이제 회원들은 지도자적

인 자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더 높은 활동률로 말미암아 지부 내에서 가족 같은 느낌을 누리게 되었다.

푸에르토리코의 산 후앙 지방부장인 윌리엄 에이 버크 부장은 "우리의 구원은 스테이크나 지방부냐가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푸에르토리코의 회원들은 푸에르토리코 전역에서 헌신을 새롭게 하고 있다. 후마카오의 안젤 로드리케스 네그론 지방장은 "우리는 가능한 한 후마카오 지부를 천국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회원들 모두 이것을 성취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지침서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작지만 헌신적인 지부의 회원들은 각각 복음의 서로 다른 면을 보여주는 아홉 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공개 모임을 계획했다. 불과 한 사람만 방문했지만 회원들은 낙담하지 않았다.

마릿사 레이에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기본적인 교리를 살펴봄으로써 아주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면서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서로 아주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훌륭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나중에 지부 소풍을 갈 때 그 부스를 이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마음속의 사랑”

구이나보 지부의 한 회원은 "여러분이 우리 모습을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사랑은

아래 쪽: 전통 민속 무용을 공연하기 위해
 줄지어선 폰세 지부의 청남 청년들
 39쪽 위의 왼쪽: 밝은 색으로 칠한 작은
 배들이 태양빛에 흠뻑 물든 이 산 후양
 해변을 더욱 다채롭게 해준다.
 위의 오른쪽: 아레스보의 무니오스 가족
 아래 쪽: 푸에르토리코 국기

찍을 수 없을거예요.”라고 말한다. 참으
 로 푸에르토리코에서 교회가 성공을
 거두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은 사람을 사
 귀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데서 기쁨
 을 찾는 푸에르토리코인들의 훌륭한
 특성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 이러한 특성들과 부합될 뿐만 아니

라 그것을 더욱 강화시킨다.

카파라 지부의 알베르토 자이야스는
 “행복한 사람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저도 분명히 문제를 갖고
 있지만 복음은 제가 그것들을 처리하
 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한다.

폰테수엘라 지부의 안젤 엘 가르시





아는 “저는 제 인생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해요.”라고 말한다.

1977년에 교회에 가입한, 카롤리나 지부의 회원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인 루시 카사블랑카는 “우리는 언제나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었지요. 복음은 우리 관계에 빛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어요.”라고 말한다. 그녀의 남편 후스토 역시 그 말에 동의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뻐던 순간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교회 부름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고 복음대로 사는 데서 행복과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지도자로서 매우 존경받는 카사블랑카 형제는 자신의 권고를 실천하는 데 솔선 수범한다. 그는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자신의 지부에 속한 대제사들과 함께 이끌고 파란다라고 불리는 푸에르토리코의 전통 행사를 갖는다. 카사블랑카 가족은 여러 가족을 함께 모아서 기타나 다른 악기를 갖고 각 회원들의 집을 찾아가 건물 밖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다. 그들은 이내 안으로 초대 받아 들어 가서 한 시간 정도 먹고 노래부르고 웃고 춤춘다. 그런 후 방문 받은 그 가족도 합류하여 모두 또 다른 집으로 간다. 이 가가 호호 파티는 밤새도록 계속되며 끝날 무렵 썸에는 모두 모인 사람이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되기도 한다. 카사블랑카 형제는 “우리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도 함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종종 그들을 방문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의 교회 회원들은 이런 식으로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예를 들면, 폰스 제1지부의 청소년들은 함께 푸에르토리코의 전통 무용을 배워서 그들이 직접 무대 장치를 설치하고 의상을 준비하여 공연을 하기도 했다.

아레스비 지부의 장로 정원희 회장인 노엘 무니오스는 이러한 단합과 봉사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그의 가족들에게 가능한 한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격려한다. 그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 또는 언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실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

“저는 경전에 대해 몹시 배우고 싶었어요.”

이 섬의 사람들은 매우 영적인 성품도 지니고 있다. 구아야니아 지부의 도엘 일리사리를 비롯해 영적인 속삭임이나 꿈 때문에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1979년에 선교사들이 우리 가족에게 물몬경에 대해 기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인 크루즈와 자녀인 마릿사 및 에릭과 함께 무릎을 꿇고 물몬경이 참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세 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주에 교회에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아레스비 지부의 토레스 가족처럼 대부분의 회원들이 집에서 경전 학습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다. 로베르토와 미그달리아 토레스는 1984년에 침례받았다. 7세에서 13세 사이의 네 자녀를

둔 아버지 로베르토 토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종교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경전을 읽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하루 동안 훌륭한 결정을 내릴 바탕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악을 멀리하도록 가르칩니다.”

미그달리아는 복음 덕분에 어머니로서 더욱 숙련되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저는 상호부조회에 참석하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 배웠어요. 우리 가족은 가정의 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아이들도 책임을 분담하고 공과를 가르치는 것을 도와요.”

이미 영적인 이들을 더욱 영적으로 강화시키는 또 다른 근원은 그 섬의 모든 지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미나리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미 새벽반에서 청소년들을 가르



치도록 부름받은 지부 회원들이다. 그들은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5, 6명의 학생들을 차로 교회에 데려와서 세미나리 수업을 한 후, 학교에 데려다 주



아래 쪽의 소년들과 맨 위 오른쪽의 드레스를 예쁘게 자려 입은 소녀 같은 어린이들이 조동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맨 위 왼쪽: 아레시보 지부의 누리아와 사라 마르티네즈가 가정의 밤에서 플루트를 연주하고 있다.



는 일까지도 한다. 아레시보 지부의 무니오스 자매는 "저는 경전에 대해 몹시 배우고 싶었어요. 세미나리를 가르침으로써 저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라고 말한다. 푸에르토리코의 세미나리 프로그램은 50명 이상의 교사와 더불어 그 섬의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에도 강한 영향력을 미치

고 있다. 도아바하 지방부의 에르네스토 리베라 지방부장은 영적인 발전의 중요성을 깊이 느낀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위해 물질적인 재산을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25절에 나오는 부유한 젊은 관원처럼 우리도 언젠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선택하여 우리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의 복음의 발전은 우리의 영성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사교성과 영성이 짝을 이룬다는 것은 회원들이 모임과 공과 시간에 복음에 대해 말하고 가르치고 간증을 전하면서 눈물과 웃음이 뒤범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영성으로 말미암아 선교사와 회원 선교 사업이 활기를 띤다. 아레시보 지부의 무니오스 가족은 1986년에 침례 받은 이래로 모범적인 회원 선교사가 되어 왔다.

21세의 기셋테 무니오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가족은 침례 받은 후 모두 가정 생활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우리는 화목해졌고 놀리는 일을 중단했어요. 또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했고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모두 복음으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싶어하죠.”

1995년 3월에 그들의 이웃에 사는 두 가족이 침례 받았으며, 무니오스 자매의 가족 몇 명과 무니오스 형제의 친구 세 명 그리고 기셋테의 친구 두 명이 침례 받았다.

많은 말일성도들처럼 이 가족도 선교 사업의 기쁨을 발견했다. 최근에 푸에르토리코의 산 후앙 선교부장에서 해임된 로날드 이 다이어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회원들은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교사와 함께 일하는 회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강력한 선교사 프로그램의 열쇠입니다.”

많은 청남 청년들이 이 선교사 정신을 이어받아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다. 멕시코시티에서 봉사했던 구아야니아 지부의 마릿사 일리사리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무척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었어요. 저의 가족은 제가 선교 사업을 한 것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복음에 대해 배우셨고 제가 떠나기 전 주에 침례 받으셨어요.”

선교 사업 뿐만 아니라 활동이 저조한 말일성도들을 도와서 새로이 간증을 얻게 하고 다시 활동적으로 만드는 것도 계속적인 과제이다. 폰스 제1지부의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다가섰다. 그들은 일종의 “활동 촉진 부대”를 돕는 데 관심을 가진 모든 회원들을 모았다. 폰스 제1지부의 지부장인 미켈 알바라도 일세는 이렇게 말한다. “계획된 저녁에 모든 사람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지부 회원들에게 짝이 될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카드를 건네 주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단지 몇 사람만 방문하도록 지명받았습니다. 두 시간이 지난 후, 회원들은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방문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찾아서 다시 접촉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우리 지부는 이 첫 번째 시도에 뒤이은 활동들에 힘입어 발

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우코 지부에서는 회원들의 활동 촉진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리찌 페레즈 자매는 “우리는 방문 교사로서 우리가 방문하는 활동이 저조한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라고 말한다. 지부장단의 두 보좌도 그들이 지부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기 얼마 전에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었다. 로드리고 페레즈 지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 주고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 지부는 우정 증진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의 생활 수준은 푸에르토리코가 서인도 제도의 다른 섬들보다 약간 더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리브 해를 강타하는 난폭한 태풍 허리케인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평평한 지붕에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 페인트를 칠한 단층집에 살고 있다. 집안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 집집마다 천정에 다는 선풍기와, 유리창 대신 미늘창(창 끝이 나무의 가지처럼 몇 가닥으로 갈라져 있는 창)과 타일로 된 바닥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집과 건물의 창문과 문과 현관은 거의 늘 열려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장식 효과로서 또 한편으로는 보안 때문에 모양을 낸 쇠창살로 싸여 있다.

말일성도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거실 한 벽에 그들이 인봉받던 날 성전

뜰에서 찍은 가족 사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림과 성전 사진 및 자녀와 손자녀의 사진 같은 것들을 붙여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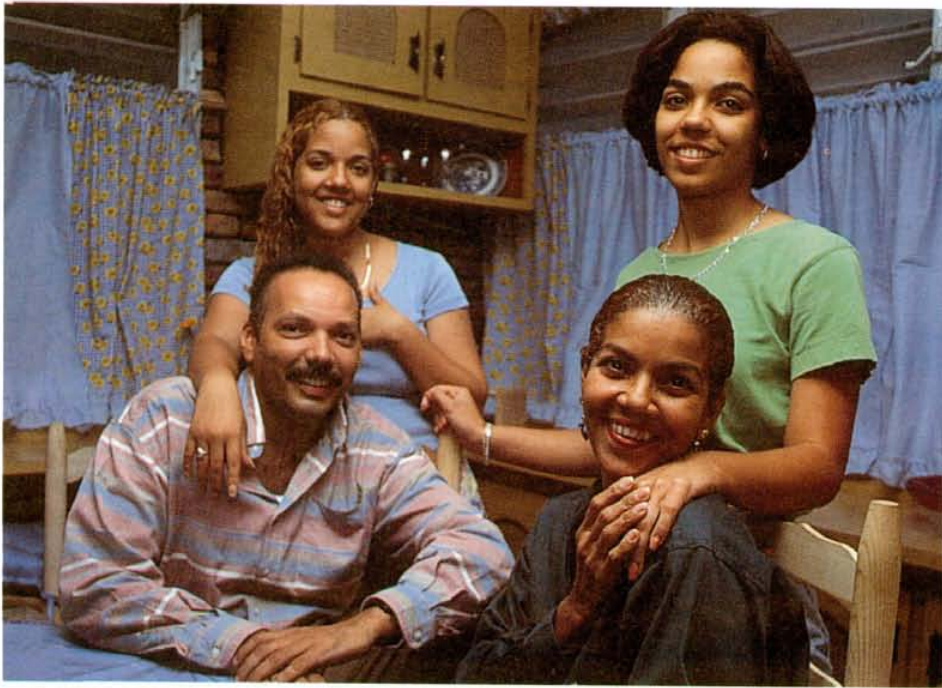
저녁 시간에는 가족들끼리 베란다로 나가서 구아바나 파파야, 또는 망고와 같은 시원한 과일 주스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습도 높은 밤공기를 가르고 “코케이, 코케이”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것은 푸에르토리코에만 있는 작은 개구리의 일종인 코퀴가 밤에 서로를 부르는 울음소리이다.

푸에르토리코의 말일성도들은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모임에서 자주 “풍성하신 주 은혜로 나 살기에”(찬송가, 138장)

를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폰세 제1지부의 빅터 곤잘레스 형제는 “십일조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저와 아내 루시가 십일조를 바칠 때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것을 얻습니다.”라고 말한다. 똑같이 폰세 제1지부의 회원인 란드론가의 헤토르와 테이지 역시 십일조의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이 축복받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란드론 형제는 12년 전에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가 두 군데나 부러졌다. 그는 당뇨병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 "여전히 다리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안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이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는 십일조를 바쳤으며 마치 떡과 물고기의 비유와 아주 비슷하게 언제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각 지부의 회원들은 서로에게 관대하며 기꺼이 돌보아 준다. 카파라 지부의 헥토르와 아마릴리스 알바레스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 그들은 치밀한 경제 생활을 통해 산 후앙이 내려다 보이는 바이아몽 언덕에 집을 사기도 했다. 푸에르토리코의 청소년들은 생활하면서 늘 유혹과 접하기 때문에 알바레스 형제와 같은 지도자들은 대안을 마련해 준

다. 그의 집 안뜰에는 바베큐기와 싱크대, 식탁과 의자, 탁구대 그리고 춤출 수 있는 방들이 많이 있다. 멋진 것은 없지만 청소년들은 언제나 알바레스 형제의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

"미 카사 에스 수 카사."(나의 집은 여러분의 집입니다.)라고 알바레스 형제는 말한다. "제가 하는 일은 제가 발전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제게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게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역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것임을 압니다."

알바레스 가족의 관대한 마음씨는 잘 알려져 있다. 아래층의 작은 아파트는 임시 숙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러 갈 수도 있다. 알바레스 형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제 시간이라거나 제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왼쪽: 복음의 빛으로 눈이 빛나는 카파라 지부의 헥토르와 아마릴리스 알바레스

위의 왼쪽: 라파엘과 루즈 디아즈(앉아 있는 사람)가 딸 로레나 및 비앙카와 함께 피야도의 집에서 포즈를 취했다.

오른쪽 위: 후마카오의 아름다운 해안선
오른쪽 아래: 폰세 지부의 청년들이 그들이 만든 무대 배경 앞에서 전통적인 노래와 춤을 발표하고 있다.

1995년 6월 30일에 헤수스 니에베스는 그 섬에서 최초의 푸에르토리코인 선교부장이 되었다. 1977년에 카롤리나에서 아내와 네 자녀들과 함께 침례 받았던 니에베스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미래는 밝습니다. 저는 푸에르토리코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은 복음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꼭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말일성도들은 태양빛과 바닷바람의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린다. 복음은 이들의 가장 훌륭한

서로 끌어주는 푸에르토리코의 청소년들

어느 3월의 아침 햇빛 속에서 푸에르토리코 토아바하 지방부에 속한 일백명 정도의 청남 청년들이 모나가스 공원의 가파른 언덕을 손수레를 끌고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말일성도 손수레 부대 개척자들의 여행을 재연하면서 그들은 먼저 스페인어로 “코모 오스 헤 아마도, 아마도 아 오토로스”를 부르고 그 다음에는 영어로 “나너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찬송가, 193장)를 불렀다.

그 청소년들은 작은 그룹을 지어 길을 따라가다가 미리 정해 둔 지점에 멈춰서 말일성도 개척자들의 경험에

관한 글을 읽었다. 마침 시간이 되었을 때는 여러 명이 울고 있었다. 그들은 “그란데 에레스 투!” 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송가, 50장)를 부르며 나아갔다.

카리브 해 교회 교육 기구 부책임자인 알베르토 자이아스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세미나리 학생들이 우리의 희생이 아무리 크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개척자들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미나리는 청소년들이 간증을 키우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푸에르토리코의 모든 지부는 세미나리를 개설하고 있으며 이곳의 두 대학교에는 모두 말일성도 학생 연합회가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이 천국 같은 열대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토아바하 지방부의 청년 회장인 브루니 모레노는 이렇게 말한다. “이곳은 파티가 아주 많은 섬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유혹이 많아요. 우리는 춤과 파티로 청소년들을 계속 바쁘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그들이 영을 느낄 수 있도록 플로리다의 올란드 성전을 여행한 것과 같은 기회들도 마련해 주죠.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에요. 세상이 그들에게 줄 수 없는 유일한 것이죠.”

마이아구에스의 한 말일성도 청년은 “저는 열다섯 살 때 친구들의 영향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두 주 후, 저는 그것이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라고 말한다. 그는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담배를 끊고 친구들의 영향력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는 즉시 담배를 끊었으나 친구들 중 몇 명은 계속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학교에서 항상 친구들로부터 압박을 받을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것에 살대처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아요.”

나란히도 지부의 18세된 조나단 네그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주변의 무수한 유혹 때문에 복음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란 소책자를 통해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을 굳힐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유혹에 지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힘을 간구합니다.”

후마카오 지부의 브라이언 리오스 형제는 청남일 때 교회에 들어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복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떤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치 ‘왕실 부대’에서 행진하도록 부름받은 느낌이며 일생 동안 복음과 물몬경을 수호할 것입니다.”

지역 청소년 지도자들의 보살핌과 세미나리 및 신학 연구원의 강력한 프로그램 덕분에 푸에르토리코의 청소년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서로를 끌어주고 도와주는 “왕실 부대”이다. □



돌과 성전

1981년 10월에 실비아 시에라는 이혼 와중에 있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나는 왜 여기에 있는거지?’ 달리 무엇이 있는걸까?’ 등과 같은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많은 어떤 것을 원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 2:44, 34~35)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커다란 희망을 발견하였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만일 그 ‘돌’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거의 두 해 정도가 지난 뒤 저는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찾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실비아는 말일성도인 친구와 함께 교회에 참석했다.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상호부조회에서 ‘영원한 가족’이라는 비디오를 보았어요. 저는 내부에서 ‘이것이 내가 찾고 있던 것이다.’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실비아는 곧 침례받았으며 이듬해에 워싱턴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그녀는 “저는 처음으로 주님이 저를 위해 커다란 축복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곳입니다. 저는 계속 그러한 축복을 열망하며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 방문은 이제 구이나보 지부의 회원인 시에라 자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그녀는 성전에 가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세 군데의 집을 청소해 주고 노변에서 음식을 판다. 그녀는 “저는 열심히 일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성전에 가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성전의 축복과 같은 보상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라고 말한다.

시에라 자매는 처음으로 성전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정규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다가 교리와 성약 65편 2절을 읽게 되었다.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굴러 퍼지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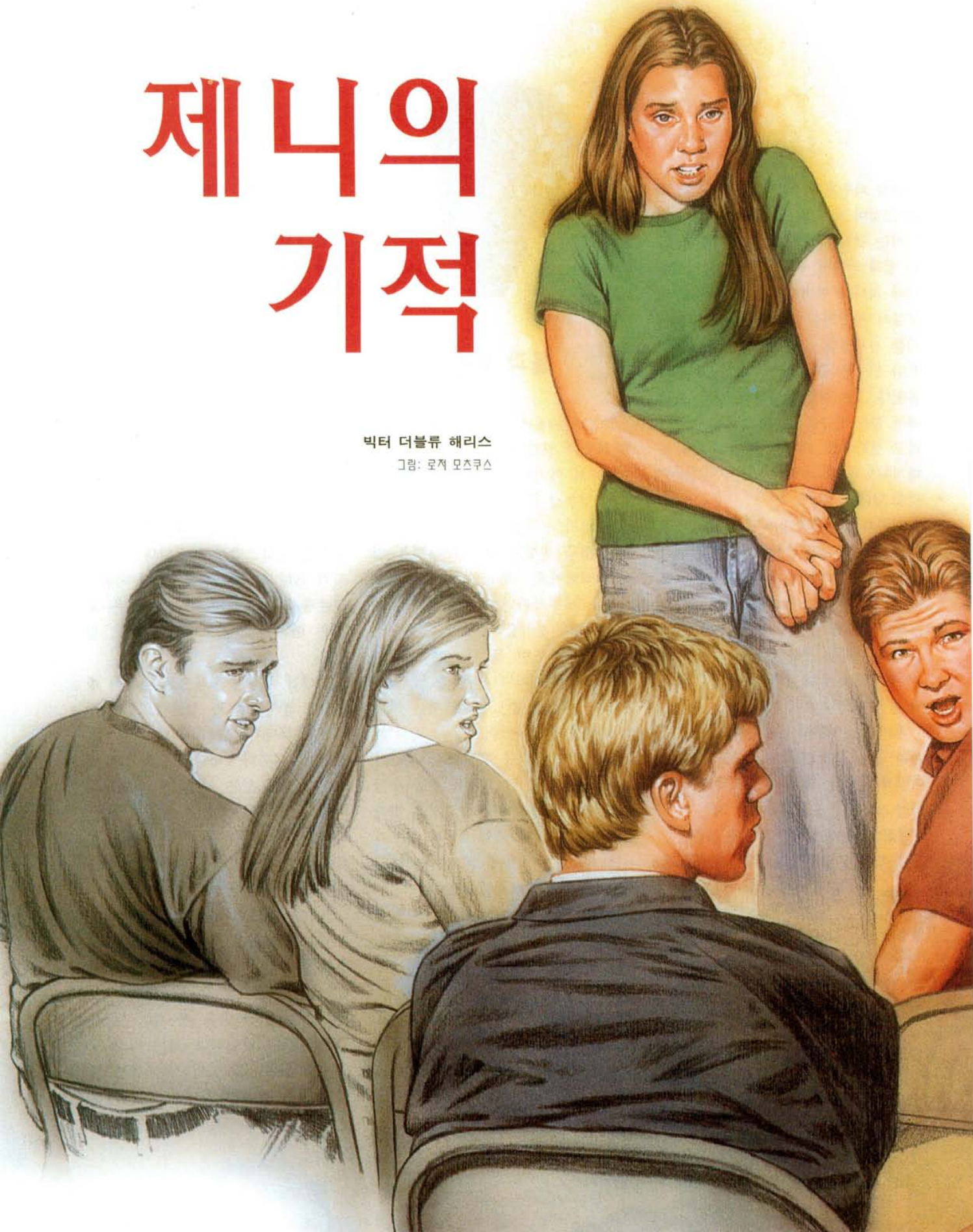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이 복음이 제가 성경에서 읽었던 바로 그 돌이라는 것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침례받았을 때 저는 그 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구속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분이 살아 계시며 언젠가 그분을 대면할 것임을 압니다.” □



제니의 기적

빅터 더블류 해리스

그림: 로저 모스쿠스



제 니가 맨 처음 저의 세미나리 반에 들어와 교사인 저에게 인사말을 건넰던 때가 기억납니다. 제니는 아주 어렵게 말을 했는데 그 말도 분명치가 않아 이해하기 힘들었으며 자기 책상으로 걸어갈 때는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그 첫 주 동안 제니는 반의 다른 학생들처럼 태연히 지내려고 애쓰면서, 대체로 반원들이 무관심해도 만족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의 다른 아이들도 어떻게 그녀를 대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제니는 애를 써서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을 이해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코를 닦아 내는 것도 힘들어 했

으며 때때로 침을 흘려 옷을 더럽혔습니다. 제니와 같은 사람의 행동이나 필요 사항에 익숙지 않은 우리반 학생들은 거의가 그녀와 가까이 하기를 꺼려 하고 친하려 하지 않았으며, 결국은 은근히 그녀를 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은 제니의 그 불구의 몸 속에 있는 강한 정신과 사랑의 마음과 용감한 영이 자신과 얘기를 나누고 자신을 이해해 주고 받아 주고 사랑해 줄 누군가를 소리쳐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공손하게든 무례하게든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제니가 반원 앞에서 얘기해도 좋겠느냐고 묻던 그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걸까 하고 의아하게 여겼지만 그녀가 전할 말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치이인 그으우가 피이료해애요.” 그녀는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저엄시임 때애에 내애 여업패애 아안자 주울 치이인 그으우가 피이료해애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났을 때 교실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하고 싶은 말을 끝낸 후 자리에 앉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제니는 똑바로 서서 지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교실 뒤편에서 트레저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네 친구가 되어 줄게, 제니.” 제니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점심 때 내 옆에 앉을거야?”

트레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점심 때 내 옆에도 앉을게.”

“매일?” 제니가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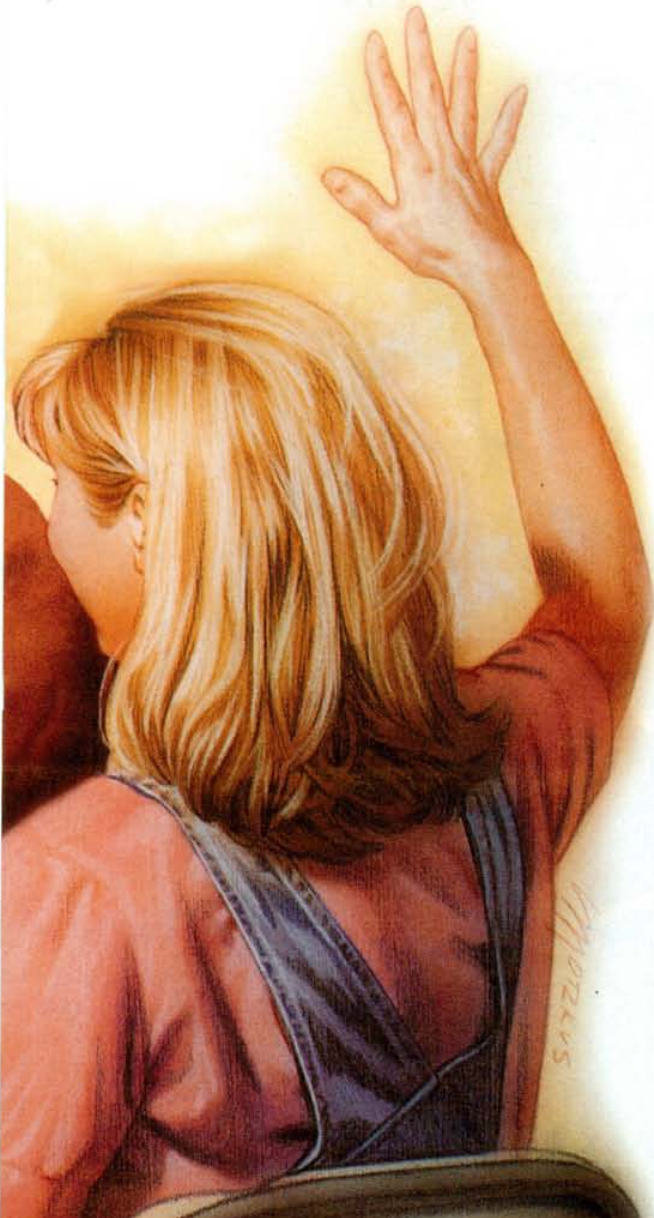
“그래, 매일.” 트레저가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로 모든 학생들은 안도감을 느꼈으며 트레저의 친구인 웬디도 손을 들어 확인시키면서 자기도 친구가 되어 매일 점심을 같이 하겠노라고 제니에게 말했습니다. “제니의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트레저와 웬디는 점심 때 제니 옆에 앉았으며 그런 후엔 학교 주차장에서 세미나리 반 건물까지 함께 걸으면서 그녀를 도왔습니다. 우리가 제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트레저와 웬디가 통역해 주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제니가 아름답고 영리한 사람이란 걸 알기 시작하면서 그녀를 활동에 초대하고 차도 태워 주고 그녀의 불편한 점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번은 제니가 흥분된 얼굴로 저에게 와서 커트라는 청년과 데이트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멋져요!” 이로 인해 제니에게는 또 다른 데이트의 길이 열렸으며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되었고 더 많은 즐거움이 찾아 왔습니다.

종종 학생들은 자신들의 느낌들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



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니는 조용히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서는 이들을 팔로 감싸 안아 주곤 했습니다. 이 장면은 반원 전체를 감동시키고 순식간에 교실은 울음바다가 되곤 했습니다. 제니는 반원들 앞에서 자주 자신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많은 축복에 대해, 특별히 자신의 가족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확고한 신앙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제니가 세미나리 반을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니가 졸업장을 받으러 서둘러 걸어 올라갈 때 제가 그녀에게 느꼈던 사랑을 기억하며 그녀가 제 인생에 준 축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 저는 예배당 뒷편에서 제니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자매님이 우리

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자매님은 다 모르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저 아이들을 보세요. 저들이 바로 그 당사자들이예요." 저는 제니의 반 친구들을 가리켰습니다.

제니의 친구들은 자신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란 걸 제니가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제니를 자기들의 친구와 만든 서클에 가입시켜 그녀가 소속감을 느끼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몸은 불구지만 인정받고 이해되기를 원하는 한 청년의 마음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영혼을 보게 된 사람들이며, 현대의 기적, 즉 제니의 기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당사자들입니다. □





그림: 그레그 케이 울슨. 성경과 문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함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바로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영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임에 저들이 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그 영이라.” (니파이삼서 15:21; 요한복음 10:16 짐작)



예 수께서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 와 어린 아이들을
에워싸매...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
(니파이삼서 17:23-24 참조)